

국가 正統性 수호 모두 나설때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1. 광복과 건국의 의의

올해는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어 국권이 회복된지 66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3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 당시에는 남북이 강제분할되었고 이념적 대립이 극심하여 좌우간 가투까지 행해지는 형편이었다.

1945년에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고, 공산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에 돌아가고 전국민이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러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을 재건한 것이었다. 해방 때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6·25 남침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최하의 빈국으로 전락했다. 그것이 휴전 후 전국민의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민주화가 달성되었다.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들어서 그 동안 1인 독재, 1당 독재, 3대 세습의 결과로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북한 주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자유민주질서를 유지한 대한민국이 해외원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질서를 유지한 북한이 해외원조를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체제가 우월한지 어떤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2. 좌파 발호와 국가흥망의 위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안에는 아직도 종북주의 좌파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해야 하는 일부 공무원과 일부 교사, 일부 정치인들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비하하여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세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교사들까지 좌경교과서를 만들어 후세교육을 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같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들 친북세력들이 뭉쳐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퇴진시키려고 할지 모른다. 월남이 경제적 우월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과 학생들의 데모로 몰락한 것을 볼 때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특별기고



김철수
· 서울대 명예교수

종북세력 國基문란 더 이상 용납안돼 언론도 국론 통일-국가발전 기여해야

대한제국의 멸망이 쇠국파, 개화파, 친로파, 친중파, 친일파의 극한대립에서 유래하였으며 6·25 남침이유의 하나가 대한민국내의 좌우이념대립으로 북한을 오판하게 한 것을 회고하면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인 것처럼 폄하하고 대한민국헌법을 '그 놈의 헌법'이라고 비하한 효과가 아직도 남아있다. 일부 정치인이나 교사들은 젊은 세대까지 오도하고 있어 백년대계가 흔들릴 지경이다. 또 일부 급진노동운동가들은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며 자본가를 착취계급이라고 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갖은 유언비어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촛불시위로 국가권력을 무력화하는 세력까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3. 건국이념 회복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자유·평화

· 복지 · 안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하여 국가는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

유, 통행의 자유, 평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인이 시위를 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생업을 방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침해이다. 한 두 명이 시위하여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공공복리침해이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정책을 선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가두시위하여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위반이다.

4. 정부·언론의 역할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대세력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전두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이 헌법에 반하여 국가 기본질서유지에 소홀했던 것 같다. 공무원이 헌법충성의무를 위반하여 정치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개인의 양심을 내세워 판결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에서 면직시켜야 한다.

일반시민들의 국헌문란행위나 불법시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여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거나 길거리투쟁을 하거나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국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친북 간첩들을 색출하여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교환해야 한다.

언론도 이념대결이나 지역대결이 극심하고 친북행위나 국가위해행위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비판하고 계몽하여야 하겠다. 언론이 보수·진보를 표방할 수 있으나 편파적 보도나 국익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좌우대립을 지양하고 국론이 통일되어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

‘核우산’ 만으로 우리는 안전한가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일본의 동북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원전 사고에 관한 뉴스를 두 달 넘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나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 첫째는,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정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 둘째는 지금 북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이대로 방관하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회의였다. 특히, 서울을 무자비하게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일 일파의 핵에 관해서는 ‘국제공조에 앞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생명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국내 문제는 잠시 논외로 치자. 그러나 그들의 정치는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과 너무나 닮았다. 아무도 나서서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제로 접어 두고 우리 문제부터 살펴보자.

실사 우리의 국내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좀 참으면 된다. 경제에 문제가 없지 않다 해도 생활수준을 좀 낮추어 조금 어렵게 살 각오를 하면 된다. 그러나 북의 핵 위협만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공조에

맡겨놓고, 아무도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날만 새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제들은 북의 핵 대처의 문제가 아니고, 엉뚱하게도 뭐든지 국민에게 공짜로 다 주자는 논의뿐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몸통이 누구냐 하는 난타전 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중병이다. 중병은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게 커지는 법이다.

오키나와 뿐 아니라, 일본 도처에 군대를 전개해 놓고 있는 미군은 일본의 피해복구를 좌시할 수 없다 해서 한때, 함선과 군부대를 피해복구에 동원했었다. 이것은 ‘도모다치 작전’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도모다치’는 일본 말로 ‘친구’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작전은 사고 원전에서 방사성 핵물질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중지되었다. 피해복구 협조보다는 자국 군대의 안전부터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진전을 보고나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어도 안전한가 라는 걱정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게 아닌가. 북이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그 것을 우리를 향해서 쏘겠는가. 쏜다면 그것은 바로 북 자신의 종말을 의미하겠는데 이런 모험을 그들이 감행하겠는가 하는 등등의 낙관론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전망인가. 또 그들은 우리처럼 상

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반도에 인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무장을 완료해 놓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핵공격 역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인데, 김정일 일파가 만일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 한다면, 미국은 우리의 기대대로 즉각 역지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일단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안전지대로 철수시키고, 사태의 진전을 주시한 다음 공격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닌가. 이 동안, 우리는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행해지는 보복공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의문이다.

특별기고



박헌태

- 본회 회우
- 전 KBS 사장
- 전 국회의원

한다는 정치판에서도 정부도 이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시끄럽게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아무개의 ‘역할론’ ‘퇴진론’ ‘나눠먹기론’ 뿐이다. 다 죽고 난 다음, 누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

캐나다 일부를 말한다. 한국은 북미와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북의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이냐.

웬만한 핵탄두 한 발이면 우리는 그 순간 다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도 우려하지 않고 있고, 국민을 위

고 있다. “미국은 핵을 사용한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행동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핵무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미국이 추구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다” “세상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Yes, we can! 이라고 말하자”

이 연설에 대하여,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는 핵의 환상주의자’라고 단정한 후 ‘오바마의 도의적 권위는 테헤란이나 평양을 누를 수 없다’고 논평했다. 중국에서도 ‘잡꼬대’라고 논평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나는 미국의 핵 역지력, 핵우산은 그 실효성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됐다.

지금 세계는 온통 핵폭탄 투성이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프랑스가 다 가지고 있고, 미얀마와 이란도 조만간 북한의 지도를 받아 곧 핵보유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들은 절대로 핵폭탄을 포기할 징조가

없다. 오히려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국행세를 하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적인 핵무장밖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핵폭탄을 능가하는 새로운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나의 관심사이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지도 벌써 60년이 넘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기나긴 세월동안 낮잡만 자고 있었을 리는 없다. 핵폭탄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핵폭탄을 구시대적인 낡은 무기로 여길만한 획기적인 기술 진전이 있다면 그나마 안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곤 한다.

이때, ‘HAARP’(고주파 활성 오로라 조사 프로그램)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름으로는 오로라 연구기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그 전모는 알수 없지만, 이것이 야탈로 핵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진 최종 무기라는 것이었다. 고주파 전자 빔을 조사하는 ‘HAARP’는 임의의 목표지점에서 회오리바람이나 지진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으며, 핵폭탄 발사 장치를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방사능 오염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알래스카에 그 기지를 설치해 놓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일시에 핵폭탄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이 나온다면 김정일 일파가 모처럼 갖게 된 핵폭탄도 물거품이 된다. 나는 하루빨리 그것을 보고 싶다. [주]

美,本土안전 우선... 한국에 도움 의문 독자 핵무장 추진등 다양한 대책 필요

이번 일본의 지진 사태로 미루어 지진보다도 해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원전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 핵물질의 확산이었다. 지진이나 해일은 그 크기가 아무리 컸더라도,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만은 어디로 날아 갈지 어디로 스며들지 알 수 없다.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위험이 종식될 지 알 수도 없다. 만일 북이 핵무기로 미국본토를 위협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게 될 경우, 미국은 즉각 이에 대응해서 북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인가. 모르긴 해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미국은 핵전쟁의 참화를 의식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먼저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핵공격을 인지한 후에, 보복을 위한 일격을 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핵 전략 기능의 최대 거점은 NORAD(North American Air-Space Defense Command)와 SAC(Strategic Air Command)이다. 핵탄두는 항공기에서도, 함선에서도 발사될 수 있으나 발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모두 NORAD와 SAC의 판단이 있을 이후에 백악관의 명령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커버하고 있는 ‘핵우산’은 NORAD와 SAC의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NORAD와 SAC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어디까지나 미국본토의 안전과 직결되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북미란 미국본토와 미국에 인접한 동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서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렇게 결심하느냐 않느냐 만이 문제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적의 온정에 맡기고, 우방의 선의의 결정에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열려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도 하루빨리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 핵보유만이 최대의 핵공격 역지력이다. 이 밖에 우리가 살아남을 다른 길은 없다. 북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도 우리의 핵무장을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주먹에는 주먹으로 대응해야지 말로 주먹을 막을 수는 없다.

일부 정치인들은 무조건적인 대북 대화와 경제원조가 선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낭만적인 발상이다. 대화란 원래 쌍방향적인 것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유를 둘러대든 간에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 아니라 별 것을 한다 해도 이 원칙은 불변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화 제의는 그들의 난국을 회피해 보기 위한 전술적인 판법일 뿐이다. 뿐 아니라, 지금 급한 것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나는 2009년 4월 5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한 연설을 기억하

政治 불신 - 혐오증 더 깊어만 간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후진국 정치수준 못 벗어

'정치'가 무엇인가의 물음에 가장 옳은 풀이를 한 어른은 공자(孔子)일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깊숙히 따랐던 오늘의 우리 해답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아닌가 싶다. 세계에서 보잘것 없던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자립한지 60여년 만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헬수 없이 많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느 재벌의 총수가 "우리나라 정치는 3류이다"라고 공언했다가 정치권의 시달림을 받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의 주장에 찬동했었다.

나는 56년전 정치학보 창간호에 '정치가 싫어지는 정치학도의 흠 말'이란 수필을 실은 적이 있다. 3대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이었던 선친 때문에 일찍이 선거판에서 살았고 심오한 이론탐구와는 거리가 먼 대학생살을 하며 정치인의 머슴으로 지냈다. 졸업 후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이 정치와는 밀접한 관련있는 유사업종 같은 신문사이어서 겉으로만 정치를 바라보며 껴안고 산 일생이 된 셈이다. 이런 나의 경험이력은 만성 난치성 정치혐오증 환자가 되었고 덕분에 세습도 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판만 해온 직업적 생리가 퇴역후에도 때늦게 발동하여 이처럼 노추의 모습을 보이게된 것이 자괴스럽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자서전엔 '나의 투쟁'이란 단어가 자주 인용된다. 한 마디로 정치는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명제가 붙는다. 1등을 해야지 2등의 낙오자는 비참하다. 정치인의 명목상 대의명분은 접어두고 처세술만 본다면 '나의 정적(政敵)을 말살해야만 내가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부귀영화와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설정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술기와 투쟁의 용기를 갖춰야 한다. 우리 역사의 그 많은 혁명 반정(反正) 사화(士禍) 의병민란 매국행위 등에는 죽고 죽이는 투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인성의 분능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정치의 속성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문화의 전통에도 정서적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反民意 전당으로

정치권하면 옛날엔 왕권과 신하인 양 반으로 한정했지만 지금은 언론도 제4의 권부라 하는 등 복잡하게 확대 해석된다. 여기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한 선출공무원과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들 총망라해서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이들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봉사정신은 찾기 어렵고 선민의식에 차있어 백성위에 군림하고 있는 엘리트 계급이라고 자만하고 있다. 요즘엔 우체국이나 구청의 민원실에 가야만 겨우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뿐

관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국회는 반민의(反民意)의 전당이 됐다.

공직자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다산(茶山)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있는데 당시의 사회상을 반증하는 증좌라고도 할수 있다. 그 당시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와 매관매직이 성행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햇볕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청백리만 있는데 검찰의 특수부나 감사원의 존재의의는 스러질 만하다.

정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관공서이며 인사철이면 줄대기가 성행한다. 당적을 가진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자기 사람 일색으로 진용을 짠다. 사정기관에 뇌물수수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교

특별기고



신 동 호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주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도 불신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선거전의 미사여구나 가당치않은 선심약속을 당선후에 이행치 않음으로써 반사적 배신감은 관료의 그것보다 몇 배 더 강하다. 권력과 금력의 위력과 마취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승진 전보 등의 인사청탁, 인허가 사업등의 이권개입 등 중개사나 변호사의 영역을 넘는 복덕방적 일거리가 많아지고 정치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도 뇌물수수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차떼기의 현찰도 주고 받을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관들의 로비자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동료를 구제하기

政官界 '머슴' 의식 실종 국민위에 군림 잘못된 관행-유산 과감히 버려야 할 때

조가 후원한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인사선풍과 학생지도 방침에 큰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다.

아무리 정치권이 부패하더라도 관료사회만 건전하면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국격(國格)이 떨어질 염려는 적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신호가 켜져있다. 금감원이나 국세청에서 퇴직 선배들의 취직처 알선이나 고문료 지급관행이 들쭉날쭉했지만 어디 그곳 뿐이겠는가. 법조계의 전관예우같은 것이 온 관청기에 두루 퍼져있다는 느낌이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정을 저지르는 생계형범죄는 줄어들고 좀 더 잘 살겠다는 축재형범죄가 늘고 있다. 가급적 정책판단 잘못으로 사후에 책임질 일엔 나서지 않으며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정년을 맞으면 전별금이나 위로금도 받고 재취직도 가능하며 노후생계는 연금으로 느긋하게 맞이할수 있다. 고급 관료가 되거나 주사급이라도 목이 좋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월급저축의 증식이 아니고 크게 한 밀전을 잡는 오리가 적지 않다. 이런 관공서에서 무경쟁 공직생활을 마친 사람들은 모두 신의 아들로 대접받는다. 쥐꼬리같은 국민연금에 의지해야할 민간기업이나 자영업 출신으로 노후를 걱정하는 다대수 국민들은 시기와 질투로 특수연금 수혜 계층을 바라보고 더러는 배아프다고 느끼기도 한다.

선실공약 실망감 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위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등의 치사한 짓은 하지 말아야한다. 자기네들 세비나 전직의원들의 보조금 인상조치 등은 만장일치로 비밀리에 처리하는 짓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政治家 경솔한言行 문제

정치인들의 수칙 제1호는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여기자에게 막말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 품위 떨구는 오만불손의 발언이나, 서울시장의 시의회에서 막말 다툼을 주고 받는 촌극은 없어야 한다. 의원직을 사직하겠다고 단식투쟁을 하던 야당의원들이 슬그머니 원내로 복귀하거나, 검찰에 불려가기 전에는 무고함을 주장하는 호언장담을 하다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괴롭힘의원, 그리고 폭력적 의사방해로 사 진발을 받겠다는 알박한 선거운동도 지양해야된다. 당내 의견도 취합 조정하지 않은채,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공언하는 원내대표의 경솔함이 대학생시위로 발전된 것처럼, 자충수를 두기 쉬운 정치인의 발언은 삼갈수록 좋다.

미국의 워싱턴 시장은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했다는 혐의로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는데 우리나라 의원들은 사진발이 받으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장소에 나타나는것도 꼴불견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를 짓고 자기방을 규정이상으로 넓게 차지하거나, 관비로 관광여행을 다니는 지방의원들이 매년 들쭉나도 끊이지 않는

다. 뒷물이 맑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1년에 2회는 국비해외여행을 나다니는 묵시적 관행이 문제이다. 온 국민이 제 돈내고 자유여행하는 판에 공짜 여행에 탐닉하는 의원들의 사고가 전세기 유물같다. 정례적으로 해외공관에 국정감사를 나가는 외무위의 행태는 세계 의정사에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의식 버려야

세계는 21세기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발맞추어 앞서가려는데 버려야 할 유산을 떨구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처량하다.

이제 사랑과 봉사, 가짐과 나눔, 배움의 기쁨을 누리자는 마당에 정치인들의 특권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머슴으로 주인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용기를 보여줘야한다. 최근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받도록 고쳤다는데 세비도 많고 7명까지 들수 있는 보조직원의 인건비만도 3억 8천만원인데 너무 많다.

철도, 선박, 항공기의 무료이용이나 골프장이 용의 특혜 등도 없애야 한다. 이러니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까지 세비를 받고 있고, 4급공무원의 비서직도 달라고 주장한다. 차량도

공용차는 소형의 전기차로 교체함으로써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시대에 선구자 역할을 해야한다. 그 무엇보다도 정치의 목표와 생태가 투쟁에서 타협과 협의로 바뀌어야 하고 정치위에 법치(法治)가 올라와야 한다.

선거구제도 등 바꿀 필요

누구나 법규를 지켜야하는 책임의식이 투철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하는 대원칙이 항시 살아 숨쉬어야 한다. 백성보다 머슴이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토록 해야한다. 집단시위와 농성같은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무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던 것도 다시 다뤄서 국민들의 법의식을 바로잡도록 해야한다. 개혁의 앞장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정화를 위해서 향우회 화수회 동창회 등은 정치관여를 자제하고 정부기관의 전직 직원들의 동호회는 해체함이 바람직하다. 각종 사회단체나 이익단체의 전국적 조직도 조심스레 관리돼야 하고 정부보조금의 지급도 재조정돼야 한다. 행정기구 개혁과 각급위원회도 대폭 정비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정원을 줄이면서 지방행정기구도 통폐합 되어야 한다. 특별시나 직할시 내의 구의회는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무만 전담해야지 소선거구제의 시나 군, 구의 지방의원역할에 매달리지 않도록 대선거구제 또는 전국구 선거구제로 바뀌어 책임 있는 정당정치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주]

‘교실파괴’ 심각 政治선동 멈춰야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교육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능력을 배양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전통을 전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지금 무능한 교육관료와 전교조를 비롯한 좌편향 정치 세력의 정치 공세와 음모로 파괴되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선 후 공교육 불신, 교육이념 실종, 교권 추락, 교실 파괴 파동으로 한국교육은 가사(假死)상태다.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불확실성은 오늘을 책임질 정치인의 권위 추락과 함께 미래를 담당할 교육의 혼선과 무력화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엘리트층까지 한국의 공교육을 못 믿어 자녀들을 미국 영국에 앞다투어 조기유학시킨다. 중산층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에 자녀를 조기 유학시키거나 외국나 과학고 입학 을 위해 좋은 학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한다. 모든 학부모가 한국의 공교육을 불신한다. NIE교육을 맡아 학교 강단에 서 보고 교실파괴를 실감했다. 교육 시설은 선진국에 맞먹

는 수준이고 학생들도 잘 자란 것 같다. 그런데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엉망이다. 학교 교실이 이미 공부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다. “많은 학생이 밤늦게 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잡자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답인 교사가 변명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인돼 교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데다 좌편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 체벌을 전면 금지해 학생지도가 더 어렵게 됐다고 덧붙인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지출 외에도 공교육비로 국방비에 버금가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도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이 황폐화 된 것을 교과부장관과 교육감들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교육행정부터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신문을 장식하는 교육기사의 대부분이 무능하고 부실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좌편향 한국사교과서

오류로 5월에 여론의 물매를 맞았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수험생 자녀가 있는 11명의 교사를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을 비롯해 출제위원 격려금(8000만원) 횡령, 불량학습도구와 불량시험지 채택 등의 평가원 비리를 교과부와 검찰에 고발했다.



박 석 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 언론법학회 이사

“교육자로서 책임을 진다”며 김주만 경북 교육감은 자결했다. 민관식문교부장관이 고교무시험진학 정책을 서두르자 당시 장학관들은 공교육 파괴 위험이 우려된 다며 반대해서 장학실 기능이 축소 조정되는 파동도 겪었다. 정치가였던 민관식 장관이 미국식 교육이식에 앞장선 관변 교육학자와 행정직 위주로 교육행정 골격을 개편한 후 공고했던 공교육 체계는

울·경기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78.5%가 “과거보다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체벌 금지 후 ‘적절한 지도 방법의 부재’, ‘교사들의 갈등상황 기피’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자유주의 교육을 앞장서 실천했던 미국 영국도 요즈음 학생 일탈행동 증가와 교실파괴로 고민이다. 영국은 7월에 1998년부터 실시됐던 노터치 규정을 철폐하고 교사의 체벌권을 9월부터 부활하는 결단을 내렸다.

학생 지도에 물리력 사용, 경찰신고, 몸수색 등도 허용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교실의 ‘망나니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교사에게 체벌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대통령도 좌편향 정권의 교육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취임 초에 약속한 교권 확립, 교육의 수월성 추구, 공교육 회생(回生)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 학생들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이어 국제물

리올림피아드·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각각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는 종합 6위를 차지했다. 국제 콩쿠르와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학생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5공화국 이후 본격화된 영재교육의 결실이다. 그러나 음악 체육분야의 영재교육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반 교과까지 양극화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학교가 정치가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교총은 직선제 교육감 취임 1년 후 교육자들이 학교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54.2%,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21.6%, 였다고 밝혔다. 교육도 좌편향 정치인의 선전선동과 질곡에서 벗어나 변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교육감 직선제·전교조·평준화 문제를 정리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4]

스승존경-제자사랑의 전통교육 실종 公교육 回生위한 정책적 결단 내릴 때

검정심의회위원장까지 평가원이 검정한 한국사교과서 오류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후속 조치를 안하고 있는 ‘나사 빠진 평가원’에 대한 교과부의 감독 소홀의 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성적 처리 오류로 2만9천7명의 고교생 1학기 내신 석차·등급이 잘못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도 8월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67개 공립학교에서 2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요즈음 군복무중인 젊은이들의 잇달은 자살과 총기 사건도 공교육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와 가정의 사람 만드는 교육을 포기한 후 속출한 사태다. 한국의 전통교육은 사람 만드는 것을 제일 목표로 극기(克己)와 자기수양을 중요시했고 교육자는 도덕과 명예를 존중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 건국 후 2세대 교육자까지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강했다. 1974년 대구에서 벌어진 연합고사시험지 유출사건에

큰 균열이 생겼으나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교육 풍토는 유지됐었다.

교권이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된 것은 좌편향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교사 교감 경력 없이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시대를 열어놓은 것이 결정적인 전기가 됐다. 미국식민주주의 교육 열풍에도 버티던 한국 공교육 조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초중등 교육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 강사 및 교수와 교장 교감 경력 없는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육감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정책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은 심화됐다.

좌편향교육감들이 들고나온 체벌 전면 금지, 무상급식, 교원평가제 보류, 일제 교사 반대 등으로 공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교조성향의 교육감 취임 1년후 일부 지역의 교실은 학습 분위기가 파괴됐다. 교총이 체벌 금지후 서

이 시대 참언론인을 찾습니다 2011 대한언론상 공모

시상일 추후 공고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1년도 대한언론상(제20회)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본보에 발표)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 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 (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1년 9월 20일 오후 5시
- 시상일 : 2011년 10월 중(추후 공지)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 732-4797~8, 02) 2001-7621
2011년 7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韋庵은 결코 親日人士일수 없다

위암 장지연 선생은(1864-1921) ‘是日也放聲大哭’이란 명 논설로 너무도 잘 알려진 한국 언론계의 우상이다. 그는 또 ‘朝鮮儒教淵源’이란 저술로 우리 유교의 뿌리를 최초로 체계화한 유학자로, 개화사상가, 경세가, 민족사학자, 한학자, 교육가 등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온 舊韓末의 선비요, 지식인이며 대문장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57년의 길지 않은 생애에 30여종의 저서, 700여편의 논설, 시문, 칼럼, 기행문 등을 남겼으며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에서 모 든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전집과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것만 몇 편 소개하면 ‘장지연과 그 사상’ (1967·천관우) ‘위암 문고’ (1971·국사편찬위원회) ‘장지연 전서 10권’ (1979·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1993·장지연 기념 사업회) ‘장지연의 언론 활동과 언론 사상’ (1993·정진석) ‘장지연의 자강사상’ (1983·구자혁) 등 수십편에 이른다.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는 1965년 위암을 서재필, 양기탁, 최병우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유공 언론인’으로 선정, 그 초상화를 신문 회관에 현창했으며 1967년에는 전국 언론인들의

의 성금을 모아(당시 78만원-지금 기준 약 1억5천만원) 황폐화 된 그의 묘소를 개수하고 묘비를 세웠다. 이처럼 그는 민족 언론의 귀감이요, 모든 후배 언론인들의 사표로 존경 받아 왔다.

그런 그가 지난 4월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당하면서 친일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언론계에 몸 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충격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정부의 느닷없는 조치에 열덜떨한 상태이다.

위암 장지연 선생은 과연 친일인사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필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장지연의 일생을 살펴보기로 했다.

장지연 선생의 언론 활동은 언론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1899년부터 1913년까지 14년간이다. 물론 그가 언론사를 퇴직한 후 자유 기고가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20년간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35세 때인 1899년 시사총보 주필이 되면서 부터이다. 그는 요즘의 언론사 보도, 편집국 기자들처럼 취재기자로 일한적은 없고 처음부터 주필이란 직책으로 논설을 담당해 왔다. 그는 1902년 시사총보 주필을 그만두고 황성신문 사장으로 취임한다. 이 시기가 언론인 장지연 선생의 진면목을 보인 기간이다.

그는 황성신문 사장이 된 후 직접 논설도 쓰고 항일 언론의 선두에 서서 독보적인 활동을 펴게 되는데 이때 그는 두 차례의 필화사건을 겪게 된다.

첫 필화사건은 1903년 5월 러시아가 평안북도의 용암포와 의주를 강제 점령하고 이 일대의 조차를 조선에 요구한다. 러·일전쟁 직전의 상황인데 이 해 9월 이 민감한 시기에 장지연은 ‘일본군이 조선 대궐을 호위할 군대를 보냈

다’는 내용의 기사를 황성신문에 크게 보도했다. 일본의 흥계를 폭로한 것이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대로하여 외교부와 궁내부에 항의하고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을 체포하여 경무청에 구금했다. 며칠 동안 심문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잡지 못하자 위암은 풀려났다. 이 일로 장지연은 경무청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배일구국의 논조를 계속해 나갔다.

두 번째 필화사건이 저 유명한 ‘是日也放聲大哭’ 사건이다.

1905년 11월 10일 일본 특명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부임했고 꼭 일주일 후인 11월 17일에 치욕의 을

사보호조약이 체결된다. 이토는 17일 새벽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장지연은 이 소식을 듣고 망국의 통분에 못 이겨 사흘 밤을 술로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를 후 内部대신 이지용이 사람을 보내 은근히 위암을 회유했다고 한다. “자네는 한성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내가 자네를 성주 군수로 천거할 테니 그렇게 하계”라고. 이것은 위암의 격렬한 항일 논설을 미리 막으려는 술책이었다. 그러나 위암은 즉석에서 이 제의를 거절하고 “나는 다만 붓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애국 애족 할 것을 깨우칠 뿐이요”라고 말했다. 이지용의 이 제의를 물리친 후 다음날 쓰기 시작한 것이 온 겨레의 심금을 울린 명논설 ‘是日也放聲大哭’이다.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 2면 상단에 게재된 이 논설의 후반부만 소개하면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사사로운 영화를 바라 머뭇거리고 으름장에 겁먹어 떨면서 매국의 역적 됄을 달갑게 여겨서 사천년 강토와 오백년 종묘 사직을 남의 나라에게 바치고 이천만 동포를 몰아 남의 노예로 만드니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외부대신 박제순과 각부대신은 깊이 나무랄 것도 없지만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장으로 단지 짐자로 책임만 때우고서 명예를 구하는 밀천으로 삼을 계획이었던가. 金滿陰처럼(김상헌의 호·병자호란때 최명길의 굴욕적 국서를 찢어버리고 통곡함) 항서를 찢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鄭桐溪처럼(병자호란때 할복자살) 칼로 배를 가르지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살아남아 세상에 다시 섰으니 무슨 낯으로 황상 폐하와 이천만 동포를 다시 대하리오. 아



정기정

- 본회 부회장
- 전 마산 MBC 사장

원통하고 분하다. 남의 노예 된 우리 이천만 동포여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단군기자 이래 사천년을 이어온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한문체를 한글로 옮긴 것임)

당시 황성신문의 발행부수는 1만부였다고 한다. 이 신문이 전국 각지로 배달되어 2천

만의 가슴에 민족혼을 되살리고 항일구국의 횃불이 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위암은 신문이 발행된 몇 시간 후 일본 관헌에 의해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구속된다. 위암 문고에 의하면 장지연은 사장실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가 일본 관헌이 나타나자 사환을

불러 인력거를 불러오라고 하면서 “나는 일본 관헌에 잡혀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 발로 인력거를 타고 경무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관헌이 “당신은 신문 검열법을 어긴 죄인이니 인력거를 탈수 없다”고 말하자 위암은 일본 관헌을 크게 꾸짖고 기어이 인력거를 타고 갔다고 한다. 그의 기개와 당당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장지연은 이 사건으로 64일간의 옥고를 치르고 이듬해 1월 풀려난다.

그 후 위암은 일제의 온갖 박해로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결국 1907년 10월 황성신문을 떠난다. 1908년 그는 대한자강회 발기인으로 국권회복운동에 힘을 쏟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교포가 운영하던 해조신문 주필로 취임하여 약 5개월간 활동하다 다시 중국 상해로 가게 된다. 상해에는 위암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상해에서 그는 괴한의 습격을 받고 건강을 다쳐 귀국한다. 1909년 귀국 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신문이었던 경남일보 주필로 초빙되어 4년간 그의 마지막 언론 활동을 하게 된다.

경남일보에서 위암은 생애 세 번째 필화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1910년 8월 19일 드디어 일본은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고 36년간의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조선 민족은 통한의 몸부림을 쳤고 위암 장지연도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이 해 9월10일 전남 구례에서 매천 황현 선생이 한·일합방에 항의하여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황현 선생은 한·일합방에 항의하여 정부 관리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자결한 유일한 분이다. 그는 1855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학문과 한학에 몰두한 훌륭한 선비였다. 그는 위암과는 상당한 교분을 쌓고 있었다. 위암은 매천 황현 선생의 자결을 보고 참을 수 가 없었다. 그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을 각오하고 경남일보 1910년 10월 11일자에 매천의 절명시 4수를 게재 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 3일 후 경남일보는 정간되고 25일 후에 복간된다. 그러나 위암은 악랄한 일본 관헌의 감시 속에 신문 제작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경남일보가 개설한 야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며 소일하다가 결국 1913년 4월 경남일보 주필 직을 사임하고 그의 파란만장했던 언론인 생활을 마감한다.

일제는 이때부터 조선 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했으며 1914년에는 위암이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졌던 황성신문과 경남일보도 폐간되고 서울에서는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문이 창간되어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식민지 암흑시대가 시작된다.

언론인 장지연 선생이 14년간의 언론사 생활을 해오면서 겪은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다. 위암의 언론 활동 시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체결된 때로서 이 시기에 민족혼을 일깨우고 겨레의 한을 펜으로 소리 높게 외친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선각자를 친일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위암이 말년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들이 몇편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위암 장지연 선생의 삶 전체를 덮어 버릴 수는 없다. 위암은 그의 생애 전체가 가시밭길이었단 것만큼 그의 생애도 불운 했고 가난에 쪼들려 아들집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생활이 어려워 회사 설립 취지문이나 비문 또는 한시를 써주고 용돈을 구했다고 한다. 그가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들도 그의 생계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위암 문고에 의하면 위암은 말년에 비참한 시국을 개탄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가을 어느 날 위암은 역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큰 며느리가 세숫물을 떠내놓자 위암은 마당에 노랑게 핀 국화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저기 일본 순사들이 있다. 어서가서 저놈들을 쳐라” “아버님께서 가꾸신 국화입니다. 고정하십시오.” “듣기싫다. 저것들은 일본 순사들이 분명하다. 빨리 목을 치지 못하겠느냐.” 며느리는 할 수 없이 국화를 모두 잘랐는데 이튿날 술이 깬 위암이 “누가 저 꽃을 잘랐느냐”고 해 며느리가 낭패를 본 일화가 나온다. 일본인을 극도로 저주한 위암의 잠재의식을 말해주는 한 예이다.

이렇듯 위암 장지연 선생은 항일의식이 머리속까지 가득찼던 분인데 그를 친일 인사로 분류한 정부의 무지와 그릇된 판단이 개탄스럽다. [2]

평창 올림픽 政治개입 경계해야

올림픽으로 일어난 나라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전설을 준비하고 있다.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를 포함, 세계에서 6번째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이룬 스포츠강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그룹으로 뛰어오른 축복의 나라. 그래서 세계가 다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을 주목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이제까지 알프스 주변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부국(富國)들의 잔치였기에 평창의 성공은 OECD진입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쟁력은 물론 국격 상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한국과는 경쟁하지 말라’는 국제무대에서의 충고처럼 한국의 세계화는 멈출 날이 없다. 여기에 평창의 ‘새 지평론’이 뮌헨의 ‘뿌리론’을 압도할 만큼 IOC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또 한 번의 경이(驚異)를 만들 차례다.

그 저력은 이미 지난해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의 약진으로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정부와 재계가 합작한 전방위 외교의 효과로 지난 7월 7일 더반 IOC총회에서 기대 이상의 압승(63-25)을 거두었다. 특히 삼성의 이진희 IOC위원, 대한항공의 조양호 유치위원장, 두산의 박용성 KOC위원장 재계트리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는 성공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 흥분이 가리웠을 지금은 그 성공전략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흑자전략이 중요함은 물론 서울올림픽에 이은 평화의 상징으로, 또한 밴쿠버를 뛰어넘는 경기성장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반대첩의 국민적인 환호와 달리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한 공동개최 논쟁과 환경문제의 마찰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것도 한국병의 하나라고 해야 할지, 정치의 개입으로 애써 이루어놓은

올림픽이상(理想)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외교의 성취를 흐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더반총회 이전 일본과 중국을 방문, 평창올림픽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평창현지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남북한 공동개최와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2018 세계축제를 한 반도 평화의 전환점



이태영

- 본회 부회장
- 전 중앙일보 편집국 섹션국장
- KOC 국제위원

아니나 다를까, 권위 있는 영국의 더타임스지는 ‘평창을 겨냥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마다 북한의 견제가 있었던 사실, 예컨대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사건과 제2 연평해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도쿄에서 “남북한의 군사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 남북한 동시임장이나 자유왕래에 의한 공동응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IOC위원을 지낸바 있는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남북공동이든 분산이든 국제약속을 바꾸는 일은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계약변경, 북측시설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림픽에서 남북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다. IOC가 나서서 단일팀 협상테이블을 주선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헛수고였다. 북한이 경제력이나 경기력에서 강세였던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때도 신금단 선수징계에 대한 반발로 현지로 도착한 선수들을 철수시켰으며 4년 후 멕시코시티에선 호칭불만으로 역시 보이콧의 오점을 남겼다. 서울올림픽 때의 방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필자는 동계올림픽의 증인임을 자임한다. 지난 세 차례(솔트레이크 시티, 토리노,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프리랜서 프레스카드로 취재했으며 또 세 차례(삿포로, 나가노,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스키연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겨울전국 선진도시에서 배워야 할 점, 우리의 후진성이나 취약점은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다.

올림픽 모범생이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는 정치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다음으로 개최국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균형 잡힌 경기력을 갖추는 것, 끝으로 평창의 낙후를 벗어나 겨울스포츠 낙원을 만들기 위한 문화 환경을 갖추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정신이 정치관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첫 과제부터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갈망한다. [4]

남북 공동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올림픽정신 훼손하는 정략발언 한심

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의 사정에 비추어 평화란 충분조건이며 명분이 될 수도 있을 터다.

그러나 체육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장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도 문제지만 IOC와의 계약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올림픽은 한 국가, 한 도시에 국한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시간 1시간 이내라는 제약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올림픽의 흐름과 세계여론을 모르는 정략적 발언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지난 12년 유치과정에선 한마디도 없었던 주장을 이제 와서 제기하는 속셈은 남북화해 협력 이전에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도 있다. IOC의 동의 이전에 유치경쟁국이었던 독일,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위협적 발언을 했다가 오후엔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4년 전 과테말라시티 IOC총회에서 필자가 만났던 장웅 위원은 ‘평창유치 절대지지’를 천명하면서도 ‘남북이 함께 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러시아의 한 IOC위원은 한국측 인사에게 평창이 남북한카드를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해오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남북공동개최란 현행 올림픽헌장에 맞지 않으며 헌장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개최는 물론이요 단일팀구성도 이미 세계여론에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추

9년걸린 ‘拉致’ 사실 追認

한적한 점심시간후, 신문제작에 쓴 자료들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언제나의 말투로 “그런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핀잔하면 “김형 일본엔 ‘정치인’이란 말은 없어. ‘정치가’라고 해요”라며 말을 바꿔 끼우란다. 맞은편 빈 자리에 앉아 일본 정계동향의 요점을 집어서 한바탕 비난한 C씨, 그는 조선총련(朝鮮總連)의 간부를 지내다가 한국 민단(民團)으로 전향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정치에 능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을 정치가, 정치에 관계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편의상 나눠서 얘기하지만, 일본사람들은 정치를 직업으로하는 전문가이면 누구나 정치가라고 부른다.

그때, C씨와 주고 받은 일본 정국 정세내용은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 하지만, 아직도 기억 나는 것은 자민당(自民黨)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잃게되자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는 정권유지를 계속하기 위해 무소속의원들에게 자민당의 ‘추가공인’을 남발해준 경위였다. C씨는 일본정국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조선총련의 조직에 대해서도 박식했으며, 가끔 심심파적으로 신

문사 사무실에 들르곤 했다. 그 후, 나의 신문사 퇴직으로 그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가끔 안부전화가 있었을 정도였다.

2002년 가을, 추석을 한주일쯤 앞두고 성묘를 위한 귀국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C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때는 이미 고이즈미(小泉純一郎)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워싱턴발표가 있던 후였다. “올것이 왔습니다. 조선총련 사회가 깨질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 일굴을 들고 살지 못 할 것입니다.” 그는 흥분해 있었다. 서로는 오랜 격조를 사과하면서 닥쳐올 난국에 대해 기탄없는

회포를 풀고자 만났다.

그는 북한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김정일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국교정상화를 미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선총련과 이에 동조한 일본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이 숨을 죽이고 회담의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난 사람’ ‘정책통’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9월 17일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北·日=日·朝) 평양선언’에 서명하고 국교정상화 교섭을 10월에 재개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때 북한은 “특수기관 일부가 맹동주의·영웅주의에 빠져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했다. 아울러 납치 피해자 5명의 일본귀국을 승인했다. 그리고 북한은 식량 25만 톤과 1천만불 상당의 의약품지원을 받기로 했다.

C씨의 예측은 적중했다. 북한의 앞잡이기관인 조선총련사회를 맹렬한 쓰나미(津波)가 휩쓸고 지나간듯 조직이 산산조각이 났다. “신세를 지고 있는 이웃, 일본사람을 잡아 가다니, 이젠 얼굴을 들고 살수가 없다”면서 많은 조선총련 사람들이 한국적으로 또는 일본적으로 국적을 옮겼다. 1990년 말까지만해도 10만여명이던 조선적이 2010년에는 3만~4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당국은 집계하고 있다.

일본의 대 북한 창구였던 일본사회민주당도 ‘때늦은 대응’에 쫓겨야 했다. 그해 봄부터 당내에 납치자문제 대응에

7면으로 이어집니다.

原電이용의 지혜 깨닫는 계기로

“내년 말 있을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포기 공약을 남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수출산업화 전략을 위축시키거나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대선주자가 국내 원전 건설문제를 표심을 좌우할 변수라고 판단하고 원자로를 짓지 않겠다고 공약해선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7, 8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를 탐방했을 때 정운관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특강을 통해 강조한 지적이다.

서울대 공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온 정 교수는 그 이유로 “원전은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가장 값싼 경제적 에너지며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다. 연료(우라늄) 조달이 용이한 안보 자원의 에너지로서 특히 우리에게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석유와 가스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한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 과소비국이다. 만약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기존 원전마저 폐기해 간다면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전반이 마비된다는 주장이다. 원전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 불가피한 생존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은 영웅과 죄인의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증가일로인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줄 값싼 에너지원이란 영웅적 얼굴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불씨로서의 화악 고란 죄인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는 뜻이다. 한국 원전은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해 설계, 건설했음은 물론 원자로 종류가 일본과 달라 여러모로 훨씬 더 안전하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 강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전 인식에 대한 균형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 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너무 강조해서 실용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위험성을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회원 36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초청으로 영광원전을 둘러 보았다. 지난 3·11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방사능 오염 재앙을 불러와 원전에 대한 세계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이었어서 원전 탐방은 회원 모두에게 관심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으며 의미있는 기회였다. 오전 8시 서울 시내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버스로

대한언론인회 영광발전소 탐방기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세종대 석좌교수

출발할 때부터 원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마음은 벌써 현장에 가 있었다. 홍원기 회장은 버스 출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1박 2일 영광 원전 탐방이 김성배 부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해 동석 회원들부터 화답의 박수가 있었다. 서울을 떠난지 4시간만인 낮 12시 영광에 도착, 점심을 먹고 막간을 이용해 역사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영광 원전에는 2300여명의 인원이 안전가동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총 6기 원전 가운데 4호기를 직접 안으로 들어가 둘러 보았다. 원자로 내부 탐방 절차는 까다로웠다. 안내 책임자의 인솔 아래 철통 같은 관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 복도에 서서 원자로 종합관리조종실을 방탄 유리벽을 통해



발전소 사무동에서의 기념촬영.

졌다. 영광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한 백제 최초의 불교 도래지다. 백제 침류왕 원년 서기 384년이였다.

원전 탐방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김대경 영광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고 영상홍보물을 보는 순서로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일본 원전사고는 우리에게도 값진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걱정을 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영광원전은 바닷가에 거대한 둥근 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돔 하나의 높이가 66m로 22층 빌딩 높이에 해당하고 지름은 48m, 소형 축구장 크기라는 설명이다. 안내자는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 우리와 같은 설계의 모의 원전 돔에 전투기 충돌시험을 한 결과 돔은 큰 손상을 입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사실을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자세히 살펴 보았다. 3면 벽에는 운통 각종 신호 기기가 뿔뿔이 들어차 있어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이었다. 6명의 컨트롤 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기 불빛들에서 나오는 이상 신호 여부를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점검하면서 원자로 안전가동을 원격 조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교대 근무를 하지만 기기는 24시간 사람의 관리를 받는다. 원자로와 터빈 등 육중한 기계설비가 들어찬 원전 심장부도 2층 조망실 유리벽을 통해 자세히 내려다 보았다.

우리나라 원전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부지선정, 설계와 건설, 운영관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규모 6.5~7.0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를 갖추고 5중 방호벽이 방사성물질누출을 차단토록 하고 있다는 것. 건설, 운영, 정비, 지원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과 관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래 지금까지 기기고장은 있었지만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비상발전기도 일본은 지하에 있어서 지진해일로 물이 들어차 가동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상에 2개나 있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 일본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동식 발전기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광 원전 6기 주변에는 10.5m 수심 인공수로에 물이 가득 고여 흘러가고 있다. 원전 냉각수를 위한 시설물이다. 원전을 돌아온 물은 섭씨 7~8도 정도 높아진다. 인공수로에는 넙치 송어 등 물고기가 서식한다.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란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원전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배수로를 낚시터로 일반에 공개한다. 원전 주변 요소요소에는 방사선 측정감시장치를 설치해 기준치 이상 방사선이 검출되면 자동경보를 울리게 돼있다. 원전 주변의 수질, 토양, 농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경남 양산 고리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래 현재 21기의 원전을 가동중이다. 원전비중이 34%에 이른다. 원전 설비용량은 1871만6천 KW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 원전발전국이다. 원전 건설은 초기엔 미국 등 선진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완전 자립해 한국형 원자로로 수출산업단계로 올라섰다. 아랍에미리트(UAE)에 140만 KW급 한국형 원전 4기 수출수주에 성공한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다. 설계와 건설비 200억달러와 준공후 60년간 원전운용 유지보수 200억달러를 합쳐 400억달러 짜리 대형 프로젝트다. 요르단에는 대우가 연구용 원자로를 수주, 건설 중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오는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영향받아 원전계획이 차질을 빚는다 해도 원전 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까지 국내 신규 건설을 10기 추가하고 80기(세계 전체 물량의 20%), 4천억달러어치를 수출, 세계 3대 원전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원전탐방을 통해 원전 안전 이용의 불가피성과 함께 에너지 절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더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4]

6면에서 이어집니다.

갈등이 생겨 ‘납치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는 했으나 결국은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동결’을 발표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다. 국회의원수도 양원을 합쳐 수명에 불과한 영세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5월,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

서 있는 ‘북한의 외국인납치범죄 보고서 발표회’에서 리처드 알렌 북한인권위원회 의장은 “북한의 외국인납치행위는 현대사 최대의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피해국별 피랍자수를 발표했다. 17명이 피랍된 일본은 나라 전체가 벌집수신듯 소연하면서 피랍자를 데려왔는데, 8만명이 넘는 피랍자가 있는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꼴이 민망스럽기도 하다.

조선총련은 “일본인납치사건은 일본 정부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1987년)은 한국정부가 각각 날조한 것”이라고 선전해 왔으며, 그들의 학교에서 쓰는 역사교과서 내용도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는 조선총련학교에는 재정지원을 할수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가나가

와(神奈川)현에 있는 조선고급학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역사교과서 내용을 바꾼다는 기사를 최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002년 9월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납치사건진상이 일선학교에서 사실대로 추진하는데 9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이다. 이보다 더 가소로운 사실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 뻔하다. [4]

迷夢 못 벗은 南北공동개최 주장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 2018겨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공동개최하자는 민주당 정치인 등 친북세력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격으로 중단된 대북 지원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재개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두 국가의 분산개최는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으며 헌장을 고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프랑스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1863-1937)의 이상대로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국제평화다. 최근 포탄이 오간 휴전상황의 한반도에서 겨울올림픽의 햇볕을 쬔다 북한을 포용한다는 게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실행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회 개최가 아직 멀었기 때문인지 몇몇 신문만이 공동개최에 대한 입장을 사실과 칼럼으로 펼쳤지만 대체로 피상적이었다. 한겨레신문은 7월8일 '평창 2018, 화해와 평화의 올림픽으로'라는 사설에서 "관건은 한반도 긴장 완화다. 평창이 속한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중에서도 전선이 관통하는 지방자치단체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올림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의 긴장과 대치 상황에서는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반면 남북의 협력 속에서 화해·평화를 일구는 올림픽이 된다면, '평창 2018'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공동응원은 물론 공동선수단 구성, 금강산에서의 경기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이루어진 화해·협력 속에서 남북관계의 일대 전기가 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88서울올림픽을 해방하려고 1987년 11월 공작원을 동원해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탑승자 115명 전원을 몰살한

사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폐막 전날 제2연평해전을 도발해 운송하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사실을 망각했다. 사실은 '지금의 긴장과 대치상황에서 성공이 어렵다'고 단정했지만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은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버티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다. 역대 정부는 1차 신청 때부터 공동 또는 분산 개최를 검토했지만 효율성과 경기력을 중요시하는 겨울올림픽의 메커니즘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 보다 신중한

줄어든다.

7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73.3%가 평창 올림픽의 북한 분산개최에 반대했다. 찬성은 18%였다. 걸핏하면 여론을 들먹이는 정치인과 언론은 자유·민주·평화세력인 국민들의 분산개최 반대 여론을 무엇으로 보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호전적인 최악의 독재체제가 아니라면 찬성 여론이 꽤 높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분산개최를 독재자의 공적으로 찬양·미화하는 정치선전으로 타락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을 것이고 관람객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에도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처럼 지정된 회랑을 통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이동하는 폐쇄성은 올림픽정신을 짓밟는 짓이고, 더욱이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경기장을 건설할 돈도 기술도 없을 것이니 결국 우리들의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단독 유치하는 꿈도 못 꾸는 올림픽에 어떤 안 좋은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경기를 나눠 달라고 할 게 아니다. 같은 민족이라면 선수들의 기량을 높여 메달을 따고 응원단을 보내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3수 끝에 어렵게 따낸 평창올림픽이 호전적인 북한 지도부와 이를 추수하는 종북세력들을 즐겁게 하는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갖고 대드는 격'으로 값진 대회를 쪼개려 들기에 앞서 올림픽이 무엇인지, 지구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체제가 과연 올림픽경기를 열 자격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에 인천~강릉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착실히 확충하여 수십조 원의 대회 준비 투자가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주인 없는 시멘트 덩어리로 남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一部紙 北변화 촉구 없이 화해만 강조 “정치적이용 그만” 따끔한 질책 아쉬워

북한에게도 판 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어야 했다.

남북협력은 말이 쉽다, 어떻게 해야 화해·평화의 올림픽이 되는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협력이라는 미명고 변덕스런 북한의 정치공세에 밀려 계속 퍼주다가는 대회 성패가 북한의 불모로 되기 쉽다. 남북 대치상황도 겨울올림픽 共催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각성, 무엇보다 평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동아일보는 7월12일 '평창 올림픽 북한 참여의 조건'이라는 사설에서 "세계인이 벌이는 雪原의 대축제가 진실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일부 종목의 개최에 응한다고 해도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설혹 그것이 가능해도 경기가 임박한 시점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북한 정권

자세를 견지했다.

국민일보는 7월14일 '올림픽 정치적이용 당장 그만두라'는 사설에서 "(장웅 북한 IOC위원의) 남북 공동개최를 원한다는 발언과 '하지만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르려면 현 대북정책을 수정하라는 위협으로 읽힌다. 그런 북한은 두 말할 것 없다. 북한보다 앞장서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 등 일부 세력은 '세계평화의 전환점' 같은 황당한 수사를 내세워 비정치적이여야 할 올림픽을 정치로 물들이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금 분산개최는 겨울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전북 무주나 강원도 원주에서도 원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바라는 이런 도시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북한쪽 분산개최를 배려해야 할 명분이

평창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다.

수습기자였던 나는 1965년 12월 10일 아침 8시 동아일보사가 모집한 스키 강습 회원 40여 명과 함께 평창에 취재차 동행한 길이었다. 동아일보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키가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 동계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 스키 강습회를 4년 전부터 개최하고 있었다.

나는 당시 대한뉴스를 통해 스키를 알고는 있었지만 입사 후 처음으로 스키 강습 현장을 취재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호기심과 함께 잔잔한 흥분을 느꼈다.

평창 가는 길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국도와 지방도로를 번갈아가며 적어도 7시간은 달렸을 것으로 기억된다. 강원도 산길, 정말로 구절양장(九折羊腸) 꼬부랑 좁은 길, 그나마 천인(千人) 절벽을 기어 가다시피 하는 버스 아래를 차창 밖으로 내다보면서 현기증이 의식을 덮는다. 움푹 패인 좁은 흙길을 먼지를 날

리며 버스가 계속 덜컹거리며 걸리며 될 때면 모두들 합창이라도 하듯 큰소리로 신음했다.

그때 회원들이 강습 받던 스키장은 지금의 용평리조트가 아닌 '오수도리' 산장과 그 앞의 나지막한 야산슬로프. 이 산장은 동경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채수흥이란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산장의 구조는 2층 통나무집으로 1층 중앙은 천장까지 흰하게 흙을 만들어 큰 난로를 두고 옆으로



이병대

·본회 부회장
·전 KBS 스포츠 국장

平昌의 今昔之感

1, 2층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천편일률적으로 깨끗하게 손질한 수입나무로 지은게 아니라 거친 잡목을 예쁘게 맞춰 지은 집으로 운치가 있었다. 이 산장 주변에는 어떤 집도 없었다. 허허벌판 눈밭 속의 이른바 독가촌(獨家村)이었다.

채수흥씨는 자신의 대학 선배가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라고 자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우분도 일본 거류민단의 체육계 유력인사 채수인씨였

다. 그때 동행한 인사 중에는 언론인 홍종인씨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이었다. 넷인가 다섯 형제가 아니었나 기억되는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고 정몽헌 회장도 있었다. 지금 기억으로 초등학교생 정도로 생각된다. 나는 그때 현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지금 보니 당시 현대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던 시기였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소양강댐 공사를 했다고 자랑하였으나 나는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동행한 홍종인씨는 평창으로 가던 중간 홍천에서 막국수로 점심을 먹을 때 먹는 법을 교육 하기도 하고 스키에 대한 강의는 돌아올 때까지 했다.

오수도리 산장 앞 슬로프는 길어봤자 50여 미터에 불과하여 공식 대회는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연습장에 불과했다. 다소 가파른 슬로프도 있었지만 강습 받

9면으로 이어집니다.

어물쩍 넘어간 ‘포크배럴’ 발언 공방

-1960년대 가난한 농촌의 부흥을 위해 가난한 농군학교를 설립한 고(故) 김용기옹은 농군학교 참여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성경 구절을 항상 강조했다.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가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표어가 큼직하게 걸려 있어 수용자들은 항상 이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지난달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교생이라야 30명도 채 안 되는 시골마을, 그리고 그 학생 숫자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실내 체육관은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의 시행착오를 대변하고 있었다. 식사도중에 한 선생님 말씀이 “요즘 시골 학생들은 도시 아이들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꽤 있지 않은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악착같이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다. 학생들이 까지도 농민들처럼 서서히 “공짜”에 길들여 지고 있는것 같다는 얘기였다.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돕겠다고 내놓은 농어촌 부채 탕감이나 구제역 매몰가축 보상과 같은 선심정책들이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갈등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빚안지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듯 평평거리고 사는 이웃을 보면 일할 의욕을 잃고 만다는 것이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열심히 해 봤자 놀고 먹는 사람들 보다 나은 것도 없다는 좌절감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높은 분들은 서울에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구호로는 시골학생들의 치열한 노력을 이끌어 내는 동인(動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더해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 주겠다는 공약까지 여야에 의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 등록금 완전무료’ 주장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같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6일 서울 외신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 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 사장

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책임자로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같은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 진정한 뜻은 살펴 보지도 않은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박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김성태의원은 박장관 발언 이틀뒤(7월 8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일국의 장

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서민을 위해 뛰는 정치권을 싸잡아 돼지에 비유했다. 어떻게 이런 천박한 발언을 했는지 박장관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용섭대변인은 한술 더 떠 “박장관은 정치권 모독과 저질 발언을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포크 배럴의 뜻이 뭔지 백과사전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 보자. 포크 배럴(Pork barrel)은 전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지만 그 이익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계층에게만 귀속되는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 이 말이 나온 것은 19세기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때내려 하는 행태를 돼지고기를 통에 던져주면 몰려드는 노예들을 비유해 비판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곱씹어 보면(박장관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의원들이

‘돼지’라고 비난 받아도 싸다고 하겠다.

-어느 방송에서도 그후 이에 대한 의원들의 해명이나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주당 이용섭대변인의 박장관 사퇴 요구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가운데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고 그 진의를 밝힐 기회가 있었으나 그런 노력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 한국 방송기자 클럽이 주최한 토론회(7월 11일·KBS 등 6개 방송사 공동 중계)는 박재완 장관으로 부터 충분히 이에 대해 해명할수 있는 기회 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박장관으로서는 의원들에게 맞서는 모습으로 적극 대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KBS를 비롯해서 6개 방송사에서 대표로 참석한 패널들은 이런 기회에 의원들의 무지를 추궁하고, 박장관의 입장을 세워주었어야 하는것 아닌가. 국민에게 명쾌하게 해명할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넘긴다는 것은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이시기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금언이 자주 생각나는 것은 필자가 지나치게 과민한 탓일까. [4]

政治人들 뜻 제대로 안 살피고 비난만 방송기자 토론회서도 해명 질문 없어



‘포크배럴’ 발언 공방을 패러디한 동아일보의 삽화.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포크 배럴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상복

관이 의원들을 돼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용납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김진

8면에서 이어집니다.

던 회원들은 완만한 슬로프 아니면 평지에서 강습을 받거나 좀 경험 있는 분들도 그곳에서 즐겼다. 강사는 연세대 교수 한 분과 전문산악인 한 분 등 두 분이 맡았다. 낮에는 스키 강습, 밤에는 포커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스키 강습회의 스키는 오수도리 산장에서 준비해 둔 장비를 대부분 이용했는데 되돌아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등산화의 구두창 앞 뒤 중간을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스키에 구두를 고정시키는 ‘빈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스키화였다. 지금의 스키화는 그때 없었다. 스키도 요즘의 멋스러운

스키가 아니라 투박한 원목 수준이었고 빈딩도 요즘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야생동물을 잡을 때 쓰는 율가미 형태의 철사줄로 보면 틀림없다. 스키 강습회원들은 아침 식사 후부터 스키를 배우고 타며 오후 늦게까지 배워 대부분 4박 5일 일정이 끝날 때 쯤 넘어지지 않고 탈 정도의 수준은 됐다.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 본 그때의 평창은 오지(奧地)중의 오지였고 묵었던 산장도 밤에 석유 램프로 어둠을 밝혀야 했을 정도의 두메산골이었다. 그렇던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열게 됐다.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느낀다.

오늘의 평창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준

다. 겨울철 아름다운 슬로프를 비롯해 특히 눈 내리는 평창의 밤은 너무나 환상적이다. 평평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걷는다는가 창 밖에 내리는 눈송이를 볼 때면 지상 낙원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스키 인구도 늘고 있는데 어느 집 할 것 없이 겨울이 되면 가족들의 성화에 스키장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곧 평창 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다. 90년대 초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을 참관한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것은 대회 후 그 지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용도의 건물을 이동식으로 지어 대회 이후 그 건물이 필

요한 다른 곳으로 이동해 활용하도록 배려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숙소 등은 대회 후 그 지방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지어 배치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면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리고 대회 이후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들은 계획 과정에서부터 잘 여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계 스포츠의 선진국이 됐다. 쇼트트랙에서 선두를 달리더니 스피드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랑할게 너무나 많다. 어찌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없으리요! [4]

과학자 가운데는 사람을 튜브의 집합체로 보는 이가 있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튜브의 전체 길이는 인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충 9m로 보고 있다.

작년에 작고한 면역학의 권위자인 일본 동경대학교의 다다도미오(多田富雄) 전 교수는 그의 저서 ‘면역의 의미론’ 제9장 ‘튜브로서의 인간’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면역의 의미론’은 의과대학의 부교재로 쓰일 만큼 전문성을 띠고 있으나 15년 동안에 48판을 찍은 롱셀러다.

“즉물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수의 튜브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이를테면 말기암이 되어 집중치료실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모든 내부의 튜브는 외부의 튜브와 연결된다. 그 때 당신은 인간이 튜브의 집합체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튜브는 소화관(消化管)이다 라기 보다는 인간 그 자체가 소화관이란 튜브를 내강(內腔)으로한 거대한 튜브로 볼 수 있다”

소화관에 관한 수백 수천권의 연구논문이 있고 노벨상 수상 연구까지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소화관의 기능에 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다분히 깔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옛날 이야기지만 위장을 ‘밥통’이라 부르기도 했다. 밥만 축내고 제 할일 못하는 사람을 일러 ‘밥통같은 놈’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밥통이 부실하거나 병들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가지 장기 중 중요한 영양분 보급기능의 구실을 하는 소화기계의 첫째는 위장이다. 음식의 통과코스의 제 3관문인 위장은 명치 바로 아래 위치하며 흡사 영어의 J자 모양을 하고 있다. 주위와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J자 모양의 안쪽은 간장과, 바깥쪽은 비장과 접촉하고 있다. 단지 위장의 모양이나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일어설 경우 보통은 위장의 가장 아래 부분이 배꼽, 골반 가까이 내려가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골반강(腔)까지 처져 있기도 하다. 반대로 마치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위장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길게 늘어진 J자 모양을 한 위장, 이른바 위하수(胃下垂)를 병으로 간주했지만 요즘은 병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위장이 처져있는 모양새 일 때는 그속에 음식물이 들어있을 경우다. 공복일 때 위장은 앞 벽과 뒷벽이 거의 들러붙어 평평한 상태라서 주위의 다른 장기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위장은 네 개의 부위 - 분문(噴門), 위체(胃體), 유문(幽門)부 유문으로 나뉜다. 분문은 J자의 머리에 해당한다. 이곳을 위장의 입구로서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을 받아들인다. 접수부에 해당하나 들어오는 음식을 식별하고 검색해서 받아들일 것과 거부해야될 것을 가려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받아들인다.

분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J자의 세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위체(위의 몸통)이며 동글러진 부위가 유문부이다. 그리고 J자 모양의 끝은 유문인데 이것은 십이지장의 입구가 된다. 분문은 들어오는 음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⑩

건강 좌우하는 9m의 旅路

유문은 근육으로 된 동근테가 열려야만 소화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위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음식을 소화하는 일이다. 식도를 통해 위장안으로 들어온 음식은 순서대로 층을 만들어 분문 부분에 저장된다. 그리고 위체→유문부→유문의 순서대로 뒤섞여 소화되면서 운반되어 십이지장으로 보내진다. 이와 같이 뒤섞이고 소화되고 운반되는 작업을 위장의 연동운동이라고 한다. 연동(蠕動)이란 꿈틀거림의 뜻인데 20초에 한번 꼴로 꿈틀거린다.

위장의 연동운동은 위장의 벽이 늘어났다가 오므라들었다가 하면서 파도처럼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液)을 분비함으로써 유해한 성분을 몸 밖으로 쓸어내는데 이것이 설사다. 또한 이것이 생체의 방위 반응이며 유해물질을 알아차리는 검지(檢知)능력과 설사라는 반응이 없다면 사람의 유아사망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위장에는 위산이 분비되는데 위산을 손등에 바르면 살갓이 타는 강력한 소화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벽이 탈 것 같지만 위액이 위벽을 코팅해서 자기소화를 방지한다. 그러므로 위벽에 손상이 생기면 위산이 위벽을 삭여서 허물어지게 된다. 이것이 소화성궤양이다. 소화성궤양이 진행되면 위벽이 얇어지고 이와같은 위축성궤양이 진행되면 위암으로 가게 된

위궤양엔 양배추 常服이 좋아

앞으로 나아가는 단순운동이지만, 이 때 위장의 움직임은 신비스럽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하다. 위장 벽의 연동과 진행속도가 위장 속 내용물의 이동보다 빠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물이 당장 한꺼번에 나아가지 못한다. 되레 역추진되어 몸통(위체) 방향으로 밀려 올라가는 일이 더 많다. 그랬다가 다시 나아가고 되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내용물과 위산이 잘 섞여 소화가 된다. 이와 같은 소화운동을 위해 상부 위와 하부 위가 각기 다른 운동기능을 갖고 있으며 공복시와 식후에 각기 독특한 운동기능을 보인다고 한다. 신기하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다. 위장속의 연동과 몇번 유문에 도달하면 그 자극으로 유문이 한번 열리면서 소화된 것들이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밀려 나간다.

십이지장에서는 췌장액이나 담즙이 분비되어 지방 같은 것들이 소화되는데 이때의 췌장액이나 담즙이 분비되는 작용은 뇌의 지령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단순한 튜브같은 장(腸)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센서에 의해 독자적으로 지령을 내림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장에는 1억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장에서 소화된 음식이 차례로 들어오게 되면 장은 그 화학성분을 재빨리 인식해서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많은 음식에는 췌장에게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술이나 스프 같은 것에는 알콜이나 아미노산을 감지해서 위장에게 위산을, 달걀 노른자위가 들어오면 담낭이 수축하도록 지령해서 쓸개물이 장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음식과 함께 유해한 성분이 들어오면 장은 스스로 장벽에 명령해서 다량의 장액(腸

液)을 분비함으로써 유해한 성분을 몸 밖으로 쓸어내는데 이것이 설사다. 또한 이것이 생체의 방위 반응이며 유해물질을 알아차리는 검지(檢知)능력과 설사라는 반응이 없다면 사람의 유아사망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장도 위장처럼 꿈틀거림으로써 내용물을 항문 쪽으로 밀어낸다. 평활근(平滑筋)이 오므라들었다가 펴지는 연동이 그것이다. 장의 운동 또한 교묘하다. 음식덩어리가 장의 내면을 자극하면 입구쪽의 장벽이 오므라들고 항문 쪽은 느슨해져서 음식덩어리를 항문 쪽으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운동의 규칙성을 ‘장관의 법칙’이라 부른다. 이런 현상은 장의 벽에 압력이나 장력(張力)을 감지하는 센서(기계 레셉터)내지는 식물의 화학적 자극을 알아차리는 센서(화학 레셉터)가 있어 그 지령에 의해 장벽에 내장(內藏)되어 있는 신경계(벽내 신경)가 정밀전자기기와 같은 회로(回路)에 의해 자극을 장벽에 내장되어 있는 평활근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장의 이와 같은 기능이 뇌나 중추신경계로 부터 독립해서 영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잠을 자거나 마취상태에서도 장은 정확하게 제 기능을 수행한다. 자고 있을 동안에 위산이 장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면 장의 궤양 끝에 구멍이 나게 된다.

소화관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트집의 모든 것을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흔히 위가 아프다거나, 배(복부)의 어느

부위가 아프다든가, 위가 무겁다, 또는 설사, 변비 따위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중에 꼭 들어서 이야기할 대목은 ‘급성위염’이다. 입을 통해 들어간 모든 것은 위점막에 접촉하므로 위점막은 항상 상처 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너무 뜨거운 것, 찬 것, 과식, 잘 씹지 않고 넘긴 것, 이런 것들이 위점막으로 보면 아주 거북하다. 딱딱한 땅콩, 견과류(아몬드, 호두 따위) 따위도 절식(節食)이 필요하다. 급성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것은 술이다. 술은 빈속에 마셔야 술맛이 좋다. 그래서 술꾼의 대부분이 급성위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안주 없이 맨 술을 즐기는 술꾼도 있지만 대개의 술꾼은 먹성이 아주 좋은 건담가(健啖家·대식가)라서 설사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 위벽(胃壁)에 탈이 안날 수 없다. 위(배)가 무겁다가 아프고, 구토증세도 있게 되면 급성위염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치료법은 원인제거와 위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약으로는 위점막 보호제나 제산제(制酸劑)를 들 수 있다. 제산기능인 H2브로커가 뛰어난 효과가 있다.

만성위염은 위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는 사람의 태반이 그 진단을 받게 된다. 별것 아니라는 것이지만 만성위염을 대충 챙기고 넘어가거나 되풀이하면 궤양으로 번져서 어렵게 되는 수가 있다. 만성위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점막표층의 염증인 표층성위염과 위장 고유의 분비물, 이를테면 위산, 펩신, 가스트린 따위를 분비하는 위장의 점막세포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위축성위염이다.

소화관에 일어나는 궤양은 위장, 소장(십이지장, 회장, 공장), 대장의 상피(上皮)조직에 일어나는 허물어짐이다. 사람의 몸은 외기(外氣)와 접촉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깥 부분이 외기와 접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외기)와 접촉하는 부위가 있다. 그것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소화관과, 콧구멍에서 시작해서 폐속의 폐포(肺胞)에 이르는 호흡기다. 이들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은 한 장의 막(膜)으로 덮여있다. 이 막이 상피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러는 소화관의 상피가 점막이다. 이 상피의 일부가 허물어져 결손이 생긴 상태가 궤양이다.

위장의 상피점막이 허물어진 상태가 ‘위궤양’이며 십이지장의 점막이 허물어진 상태가 ‘십이지장 궤양’이다. 위장의 점막세포는 염산과 펩신이란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이 소화액이 위속으로 들어온 육류 등 단백질을 죽모양으로 삭이는 것이 소화의 첫 작업이므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위의 점막세포도 당연히 위산과 펩신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소화되는 일을 상정(想定)할 수 있으나 보통의 상태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화관의 점막세포가 점액(위액)을 분비해서 소화관 벽을 코팅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화관 속에선 공격과 방어라는 두 작용이 교묘하게 밸런스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약제(藥劑)의 작용, 또는 먼저번(8회)에 이야기한 ‘기묘한 세균 헬리코박터 페일리리’에 의해 점막세포에 이번(상처)이 생겨서 공격축이 우

영화평

씨니

女高시절 우정소재 ‘묵은지 비빔밥’

강형철 감독의 한국영화 ‘씨니’는 묵은지 비빔밥 같은 영화다. 겉절이의 생동감은 없지만 숙성된 묵은 김치로 잘 비빈 비빔밥 같은 영화다. 올해 상반기 극장가 관객동원 톱을 차지한 ‘씨니’는 여러 가지 나물에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고추장이란 매운 소스에 비빈 비빔밥처럼 달콤한 추억과 고달픈 현실을 오고가면서 코미디와 멜로로 잘 조합해 40~50대 여자들의 감성에 화학적 큰 반응을 일으켰다.

‘씨니’는 제명도 외국영화처럼 아리송하고, 슈퍼스타도 출연하지 않고,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도 아니며, 감독인 강형철도 데뷔작 ‘과속스캔들’에 이은 두 번째 연출인데 무슨 힘으로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을까. 일부에서는 여고시절 왈가닥클럽의 ‘우정’이란 주제가 요즘 한국사회 대중문화를 석권하고 있는 세시봉 같은 복고풍 음악과 절묘하게 매치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영화는 70~80년대 유행했던 음악들이 영화장면과 잘 어울리는 하지만 꼭 이것이 흥행요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엔 영화 ‘씨니’의 장점은 가족 뒷바라지와 생계에 지쳐 꿈을 잃어가는 중년여인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고달픈 현실의 삶을 위로하는 데 있다. 현실이 고달플수록 추억은 아름답다. 이 영화는 추억의 재생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도 실현시켜 준다. 영화 끝 무렵에 여고시절 7공주클럽 씨니의 대장인 하춘화(진희경)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6명의 여

고시절 클럽 회원의 노후연금을 모두 가입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친구에겐 집을 마련해주고, 가난한 친구에겐 통장도 넘긴다. 건설회사 사장부인인 홍진희가 “나는 왜 안주냐고”고 앙탈하자 죽어가는 대장은 “이년아 너는 돈이 많잖아”하고 일침을 가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눈물과 웃음을 교차시키면서 관객의 눈과 가슴을 노크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따뜻함이 난류처럼 흐르고 있다. 이 영화의 매력은 바로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년여인들의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에 있다.

나는 영화 ‘씨니’를 예술영화나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험적인 영화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흥행을 목표로 만든 영화다. 이 영화의 작품성 평가를 제외한다면 이 영화의 장점은 많다. 우선 관객 타깃을 40~50대 중년여인으로 확실하게 겨냥했다. 그리고 요즘 흥미한 복고조 바람을 타고 날개를 달았다. 이런 기획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화기법 면에서는 디테일(세부묘사)이 아기자기하게 살아있고, 템포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화전개가 물처럼 막힘이 없다. 내용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논설실장

에서도 세속적인 흥행 포인트를 알미울 정도로 잘 잡았다. 두 편을 연출한 신인 감독이지만 관객동원의 맥을 제대로 짚었다.

인간의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작품성은 없다고 해도 압으로 죽어가는 씨니 클럽 대장의 재산분배를 통해 영화로 비현실성(인간의 한계)을 현실화 했다. 현실

의 삶이 고달픈 서민들은 영화를 통해서나마 꿈의 실현을 대리체험 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지극히 불가능하지만 영화에서는 우정이 가난을 해결해 준다. 보험유치 실적이 맨 날 최하위인 보험설계사 친구는 보험여왕에 오르고, 인생유전 끝에 번두리 술집 호스리스로 전락한 친구는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얻는다.

여고시절 씨니 클럽 대장 진희경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실을 안 유호정은 죽어가는 대장에게 여고시절 7공주클럽 멤버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지금은 소식이 끊어진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이때부터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왕래하며 추억과 현실을 교차시킨다. 시간의 터널을 오고가면서 이 영화의 디테일은 빛을 발하고 중년 여인의 감성에 불을 붙인다. DJ가 있는 음악다방이 나오고,

그 시절 음악이 흐르고, 민주화를 외친 데모대가 시가지를 누비고, 여고생과 남대생의 풋사랑과 실연이 장면을 장식한다.

이 영화가 추억의 감상(感傷)으로 빠지지 않게 버텨먹을 해준 것은 코미디 신이다. 나미(유호정)는 여고시절 전남 벌교에서 서울 진덕여고로 전학 온다. 나미는 공부는 잘 하지만 사투리와 굵은 행동으로 이지매를 당한다. 씨니클럽 대장 춘화는 나미를 클럽에 가입시키고 보호한다. 극중에서 나미의 사투리와 소녀시대 왈가닥 클럽과의 집단 대결 1대1 싸움은 치기가 흐르지만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나미의 행동을 신기로 오해하고 상대클럽이 물러나는 장면은 유치하고 현실성도 없지만 관객들은 폭소를 터트린다. 나미의 고향이 대한민국 232개 시 구 군 중에서 왜 하필 벌교인가. 지명 하나에도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예부터 “벌교에서 주먹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벌교는 주먹의 대명사 지역이다.

이처럼 강형철 감독은 예술성의 거창한 메시지보다 일상의 디테일에 집착하며 재미로 승부를 걸었다. 그리고 라스트 신인 장례식을 ‘울음의 바다’가 아닌 ‘축제의 무도장’으로 만든 예절의 반란도 돋보인다. 마지막 변호사의 춘화 유언장 낭독도 중년여인의 비현실성 꿈을 영화로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극장을 나서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일상의 고달픔을 영화한 편으로 위로받았다면 입장료는 아깝지 않다. [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위(優位)에 서면 점막세포가 소화됨으로써 궤양이 일어나게 된다.

십이지장궤양은 위궤양과 같은 장소에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증상만으로는 헛갈릴 수가 있으나 십이지장 궤양은 공복시에 아프고 식사를 하면 가볍게 되나 위궤양은 십이지장 가까운 곳에 궤양이 생기면 십이지장궤양 비슷하게 공복시에 아플 경우가 흔하지만 위궤양 전체로서는 식사에 의해 통증이 가벼워지는게 아니라 되레 아플 수가 있다. 궤양에 의해 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으나 변과 함께 나오는 하혈(下血)의 경우 시커먼 콜타르같은 변이므로 일명 타르변이라고 부른다. 새빨간 피의 경우 치질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직장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일 수 있으므로 병원의 검진이 필요하게 된다.

20년전 쯤 나는 위궤양에 시달린적이 있으나 일본제 위궤양약 캐비진 유(U)로 고친 경험이 있다. 일제약 캐비진 U의 U는 양배추(캐비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U를 딴 것인데 양배추에는 그 밖에 비타민 A, B1, B2, C, E, K, 나이신 안 등 비타민류(類)와 미네랄 성분도 많고 칼슘, 인, 철, 칼륨, 마그네슘이 많다. 특히 비타민 C 함량이 월등하

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토끼처럼 양배추를 먹어라고 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비타민 U와 K다. 비타민 U에는 위벽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위나 십이지장의 궤양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가넷 박사는 55명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게 신선한 캐비지 주스를 마시게 하는 실험의 결과 놀랍게도 95%의 환자가 2일에서 5일 뒤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만류이나 중대한 장애로 보는 것 중에 변비(便秘)가 있다. 흔히 변비를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2~3일에 한번 변이 통하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괜찮다는 견해가 있으나 나는 변비를 꼼꼼하게 생각하는 변비공포증이 있다. 변비가 여성에게 유방암을 부르고, 남녀같은 비율로 대장암을 불러오는 환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선 얼마나 지저분하냐 하는 생각에서다. 섭취한 음식을 삭여서 영양분은 따로 견어내서 육신의 활력소로 쓰는것 까지는 군말이 있을 수 없으나 그 찌꺼기, 버려야 할 오물을 종말 처리장인 대장에다 담아두고 이물이고 사흙이고 견디다면

어떻게 되나?

청 때 양장거(梁章鉅)가 엮은 귀전쇄기(歸田瑣記)에 이르기를 ‘오래 살고자 한다면 배속이 깨끗해야 한다’(欲得長生腹中清)고 했다. 배속이 지저분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바탕에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小食多動)는 생활습관이 숨어 있다.

변비는 소화관의 운동기능, 곧 꿈틀거림(연동)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식물성유질을 덜 섭취했다는 증거요, 물을 덜 마셨다는 증거다. 인체의 70%가 물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체내에 수분이 모자라면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목마름이 있기 마련이지만 가령 물을 1리터 마시더라도 대장에는 그 10분의 1정도가 공급되므로 식물성유질 섭취가 태부족인데다가 수분공급이 모자라면 이른바 대장의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하는 점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지만 나는 게르마늄 성분이 든 광천수를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고 과일과 야채가 주식으로 되어 있다. 아침 저녁으로 구운 토마토 한 개에 첫물에 짠 올리브 기름을 큰술갈 1술가락 쳐서 먹는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변

기에 앉으면 단숨에 40cm 담황색 말뚝이 물에 뜬다. ‘Shit contest’가 있으면 우승감이지만 세상에 그런 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암도 고친다는데 변비를 못 고친데서야 말이 되겠다.

사람의 장 속에는 100종류, 약 100조(兆)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게 일본의 세계적인 장내세균의 권위자인 미츠오카 도모타리(光岡知足)의 이야기이다. 이들 세균 중에는 건강을 좋게 하는 유효균인 비피더스균 등과 장속의 환경을 나쁘게 하는 웰슈균 등이 함께 무리지어 살고 있는데 장속의 환경을 좋게 하여 건강하게 하자면 유효균인 비피더스균을 불어나게 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시판되는 요구르트 중에는 이름을 바로 비피더스로 붙인 것도 있으며 대부분의 요구르트 속에는 비피더스균과 그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함께 들어있다. 이러한 요구르트를 습관적으로 매일 마시면 장속의 환경을 좋게 하는 비피더스균이 불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장의 꿈틀거림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질적인 변비가 요구르트를 마시므로써 낫는다고 할 수는 없다. 체험적으로는 떠먹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올리고당을 티스푼으로 하나 첨가하면 좋을 것 같다. [4]

2011년 7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층 커피숍에서 만난 宋斗彬 화우, 우선 전립선 암 수술 경과가 궁금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눈물겹도록 고마운 가족 사랑

“예, 한 달 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말로 결과가 좋다니 다행이고 실제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기쁩니다. 한마디로 건강은 각자가 지켜야지 이 세상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전립선암을 선고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기 전에 자주 체크도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땐 빨리 병원에 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화우들이 문병해주시고 위문전화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아누워 보니 가족처럼 고마운 존재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도 눈물겨웠고 자식들이 정성껏 보살펴주어 다시 한 번 가족 사랑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교 2학년 때 6·25 참전

“慶南 咸陽에서 태어난 나는 서울 경동중학교 5학년(현재 고교 2학년)에 다니던 중 6·25 전쟁이 발발, 그해 9·28 수복 때까지 3개월 동안 적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1950년 12월 3일 17살 나이에 대구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에 입대, 10여 일간의 짧은 신병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최전방 육군7사단 3연대 3대대 10중대에 배속 됐어요.”(잠시 회상에 젖으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산 것이 기적 같아요. 논두렁에 엎드려 M1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힘껏 방아쇠를 당겼는데 웬 일인지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른 실탄을 집어넣고 다시 방아쇠를 당겨도 역시 불발이었어요. 알고 보니 소총의 공이치기가 부러져 있었어요. 전날 밤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병기계가 갖다 준 그 M1소총을 뿔뿔도 없는 채로 받아 통신 와이어 줄로 엮어서 들고 나왔는데 신병인 탓으로 공이치기가 부러졌는지 확인조차 못해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지요.

한참 싸우다 보니 아군과 적군이 흰 방한복을 입은 채 참호 속에서 뒤범벅이 됐는데. 날이 밝을 무렵 상대를 식별할 수 없어 모자를 벗겨 가까중머리면 적군이고 스포츠머리면 아군임을 알았어요. 백병전을 벌인 것입니다. 결코 잊혀 지지 않는 전쟁 장면과 참상. 극한 상황은 아직도 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된 악전고투와 14일간의 주야간 행군 끝에 淸川에서 洪川, 橫城, 原州, 堤川, 丹陽, 慶北 奉化를 거쳐 강원도 寧越군 中東洞 礪田리에 도착한 우리 부대는 이미 그 곳까지 내려온 적군을 만나 다시 전투에 들어갔고 힘준한 산병우리를 타고 적진을 공격하려고 대기하던 중 아군 포병부대의 지원사격이 관측 잘못으로 아군 진지에 떨어져 수많은 장병이 몰살당하는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1954년 3월 전역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중에 받은 0159085 군번을 이렇게 살아서 가슴속에 새기고 있으니 하나님도 도왔는

지 조상님이 돌봤는지 정말 꿈만 같네요.”

“다시는 이 땅에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생채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깊은 성찰과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숙연해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묵묵”이라고 강조하는 송두빈 화우.

17세에 入隊 九死一生…人間味 넘치는 발자취 記者협회 창립 산파역… 언론자유수호-권

하는 백발이 성성한 6·25 참전 노병 宋斗彬 화우, 지금도 그때 그 처절했던 전투장면이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어 보인다.

동화통신 공채 2기로入社

- 언론계에는 언제 발을 들여 놓으셨나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6·25 전쟁 때 군에 입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제대하여 좀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고려대 사학과 4학년 때 취직이 어려워 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볼 겸 당시 동화통신사 공채시험(견습 2기)에 응모했다가 합격통지를 받고 1957년 8월 1일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이 평생을 언론계에 몸담게 된 거지요. 동화통신사에서 처음 배치 받은 부서는 조사부였어요. 입사동기생은 네 명이었는데 나와 李基昌(고려대) 李相玉(서울대) 辛相甲(서울대), 나는 여기서 사회부기자를 거쳐 경제부차장, 주일 특파원, 사회부장, 경제부장, 편집부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1973년 4월 해간 될 때 까지 17년간을 재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서울신문과 내외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에서 정년퇴직, 도합 34년을 언론계에서 뒀 셈이지요.”

- 현직에 계실 때 특종도 많이 하셨고 생각나는 일화도 많으실 텐데요-

“동화통신사에 막 입사해 열심히 일할 때의 일인데, 회사에서 3개월만 되면 견습기자 딱지를 떼어주겠다고더니 5개월이 지나도록 꿀 먹은 벼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자 송년회 도중 받은 월급봉투를 동료들과 공중에 확 뿌리면서 퇴장 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고 4·19 학생 데모 때 학생들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피를 쏟고 쓰러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유혈의 현장을 취재해 데스크에 상황을 연락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일선기자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군요. 어디 그 뿐인가요. 뒷날 국방부에 출입할 때 관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취재를 다니는 동안 체제 우위성을 놓고 입씨름하던 북한 기자를 10여년 뒤 평양서 열렸던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 때 다시 만났던 기연(奇緣)도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갑니다. 남북조절위 평양취재에는 한국 朴鉉兌, 중앙 趙東午, 경향 崔瑞永, 동아방송 徐炳鉉, 동화통신에서 나 宋斗彬이 대한민국공동취재단으로 참여 했지요. 이때 남북조절위 남측 대표 李厚洛씨가 북한 박성철에게 ‘6·25는 왜 도발 했는가’라고 따지

자 갑자기 허를 찔린 박성철이 ‘그때는 그 때고…’라고 엉겁결에 대답하자 당황한 북측 다른 대표가 박성철의 입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우리 취재진은 즉시 ‘북이 6·25 남침시인’이라고 서울에 송고해 도하 각지가 대서특필했던 사실도 잊지 못할 취재 비화지요. 돌이켜 보니 한일 국교정상화를 전후한 3년간 조선 金潤煥(작고), 한국 李元洪, 경향 鄭在虎, 서울 徐基源(작고), 중앙 韓鍾愚, 동아 柳赫仁(작고)씨와 함께 한 주일특파원 시절(1965-1967)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최고회의, 경제기획원, 상공, 농수산, 건설, 국방, 내무, 보사, 교통부 등 출입처를 모두 섭렵했지만 朴正熙 대통령 서독 방문 수행 취재 등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누볐던 그 때 그 왕성한 취재 활동은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 지는 취재현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64년 12월 차대통령 서독 방문 수행취재단 중에는 동아 柳赫仁, 조선 李慈憲, 한국 鄭光謨, 서울 鮮符鍊(작고), 동아 文胎甲, 합동 高在琿, 동화 宋斗彬, 대한 田炳晟(작고) 경향 李祥雨씨가 동행했습니다. 마침 오는 12월 근대화·산업화를 위해 몸부림치던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함보른 현장에 朴正熙 전 대통령 연설기념비가

和睦 이끄는 영원한 言論人

회우초대석

宋斗彬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 논설위원
· 현 헤럴드 미디어사우회 회장

인터뷰 글 · 사진 정운중 (본회 상임이사)

세워진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言論은 언제나 불변의 목탁(木鐸)”

宋斗彬 회우 그는 항상 발로 쓰는 記者였다. 출입처를 드나들 때마다 회오리바람을 몰고 다녔다. 자주 특종을 해 다른 기자들이 질시(?)할 정도였고 기사를 취재해 기자실에 풀을 하는 명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 그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료들의 정평이다.

동료 기자들이 말하는 宋斗彬 회우는 항상 따뜻한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보스형 기자로 통한다. 슬픈 일이거나 기쁜 일이

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鐵의 사나이. 자상하면서도 온화한 外柔內剛형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한번 시작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듭을 짓고야마는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 ‘기사를 빠뜨리거나 품위를 저버린 기자에겐 불호령을 내리는 어찌면 무서울 정도로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宋斗彬 회우였다고 한다.

1973년 일간 내외경제창간에 참여한 그는 취재부장과 편집국장에 올랐지만 항상 일선기자 못지않은 흥분과 정열로 일했다. 편집국장 취임 후 매일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기자들과 설렁탕을 들며 새 기사를

갈아 끼우는 등 강인한 저력을 과시한 일을 기억하는 동료들은 많다.

이런 宋 회우의 집념과 투철한 自由言論觀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1958년 고려대 史學科를 나온 그는 1976년 성곡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신문연구소에 1년간 유학 하고 곧이어 중앙대학교 국제경

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는 등 학구열이 남달랐다. 내로라 하는 교수들에게나 돌아가던 고려대 사학회 회장직도 4년씩이나 역동적으로 맡아 보았다. .

宋斗彬 회우는 봉사 정신도 남달랐다. 1981년부터 19년 동안 高大校友會報의 편집위원으로 봉사해 온 공로로 지난해 9월 1일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대교우회보 창간 40주년 기념식’에서 功勞牌를 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다.

韓國記者協會 초대 부회장 역임

宋斗彬 회우는 지난해 韓國記者協會를 창립할 때 초대 부회장을 맡은 사실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 내가 초대 부회장을 맡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964년 8월 17일 오후로 기억되나더마는 신문회관 3층 강당에서 韓國記者協會가 발족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19개 신문·통신·방송사 기자 200여 명과 洪鍾二(작고) 등 언론계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창립총회를 가졌고 준비위원회의 치밀한 계획대로 대회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회장에 李鍾鉉(작고·동아일보 지방부차장), 부회장에 宋斗彬(동화통신 경제부차장) 劉承範(작고·합동통신 정치부차장) 趙東午(한국일보 사회부차장) 崔權永(작고·대한일보 편집부차장)을, 감사에 徐基原(작고·서울경제 취재부차장) 朴璣淑(MBC 정치부차장) 등을 만장일치로 뽑았지요.

당시 記協의 창립은 言論倫理委員會法 철폐투쟁과 맞물려 있어 여러모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재정형편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언론단체나 정부 또는 어떤 회사로부터의 지원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필요한 경비를 각 기자단의 찬조금과 준비위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썼어요. 이로 인한 회장단의 고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도 창립 준비위원회가 기초하고 추가한 言論人資質向上, 言論自由守護, 權益擁護, 國際交流強化 등 4개 항의 실천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내외경제 강제 종간 분통터져

이렇게 언론자유를 위해 투사적인 기개를 앞세웠던 宋斗彬 회우에게 자신이 창간에 참여한 신문사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문을 닫아야 하는 운명이 됐으니- 宋 회우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1980년 11월 12일 보안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당시 金泰東 사장(작고)은 ‘11월 25일까지 내외경제를 종간시키고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강요받았고, 미처 도장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각서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당시 사원 대부분은 종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레 알려진 소식에 분노를 쏟아내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11월 18일자 신문에 ‘내외경제가 종간하고 코리아헤럴드와 통합 된다’는 社告를 내며 終刊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24일 나는 마지막 호 신문강관을 알리는 벨을 울리며 내외경제의 막을 내렸다. 당시 ‘종간모임’을 하면서 편집국장인 내가 먼저 술잔을 내던지며 비통해했고 모든 기자가 술로 그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편집국은 빈 술병 100여개가 나뒹굴었고 편집국 책상의 모든 유리가 깨져있었다” 내외경제 강제 종간 과정을 이

처럼 현장에서 생생히 겪었던 宋斗彬 회우는 “당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정부는 피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宋斗彬 회우는 특히 한라대학교 설립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내외경제 신문을 떠나 한동안 한라그룹 전무이사를 거쳐 한라환경산업(주) 대표이사, 한라그룹 부사장 상임고문을 역임하면서 그룹 홍보와 원주에 세운 한라대학교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헤럴드미디어 사우회장으로

宋 회우가 지난 2001년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정기총회에서 사우회 회장으로 추대된 이래 10여년을 한결같이 사우회를 이끌고 있는 비결도 그의 탁월한 친화력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2010년 1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송년의 밤’. “희망 속에 맞이했던 경인년도 어느덧 송구영신의 대자연 법칙에 따라 많은 아쉬움과 회한만 남긴 채 영겁의 세월 뒤편길로 덧없이 사라져갑니다.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10여 년간의 좌과평권도 성난 민심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고 만 지못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宋斗彬 사우회 회장의 감회 어린 인사말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다.

宋회우는 부인 張信子 여사(숙명여대 교수로 정년퇴임)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신앙심이篤실한 외아들 京原씨는 현재 뉴욕 주 방햄튼 시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딸 潤祉씨는 사위 金俊豪씨와 결혼해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거주하고 있다. 술 담배와는 거리가 멀고 지주 가볍게 등산을 하며 健康을 챙기고 있는 宋斗彬 회우, 우리시대 영원한 言論人 宋斗彬 선배의 健勝과 家庭에 늘 祝福과 榮光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4]

로 뛰는 名記者 익향상 앞장

이거나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의 천성은 소속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 빠짐없이 열성적으로 참가하기로 소문나 있다. 이 같은 人間味와 親和力은 그가 항상 강조해 말했던 ‘協同과 和睦’의 생활철학으로 자주 표출되곤 했다. 내외경제신문사 편집국장 시절 그의 편집국 운영방식도 철저히 和睦과 人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조직은 협동과 화목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고 신문기자는 다소 여건 변화가 있기는 하나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木鐸이 되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宋斗彬 회우가 말하는 言論觀이다. 그래서 그는 평소 후배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기자가 되라고 당부하곤 했다. 기자는 모든 것을 광범위 하게 알아야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그의 持論이다 그 역시 ‘자신이 공부하는 기자임을 스스로 실천해 왔고 신문기자가 안됐다면 敎授직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學究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宋斗彬 회우를 아는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언론계에서 보기 드문 ‘집념의 사나이’라고 평한다. ‘활달하면서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그러나 강인한 집념과 치밀함

회우 子女 동정

俞仁根 회우 아들 건축학책 펴내 화제

본회 俞仁根(전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회우의 아들 현준씨가 ‘52 9 12’란 책을 펴내 화제다. 책 제목으로서는 생소하다고 할만한 ‘52 9 12’는 건축용어인가 했더니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과장인 저자가 바라본 시각을 이야기한 것.

52는 건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의 갯수를 뜻하고 9는 저자가 설립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철학을 설명하는 글의 갯수이며 12는 저자가 디자인한 작품중 선정되어 게재된 프로젝트의 갯수를 뜻하는 것.

저자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는 공간을 정보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 건축관이 서지않고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슬그머니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예비건축가들에게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인지, 훌륭한 건



축이라면 반드시 디자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를 염두에 두라고 이책을 통해서 저자는 충고하고 있다. 저자 유현준씨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MIT와 하버드대학을 거쳐 2010년에는 MIT교환교수로 재직했다.

필자는 국제산업전에도 출품, 5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4]

정가 17,000원

www.kepco.co.kr



여름철 무정전 전력공급, KEPCO가 이뤄가겠습니다

장마, 태풍, 하계부하 등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은 열화상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철저한 전력설비 점검으로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설비피해 예방 요령

- 전력선 인근의 수목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설비 인근의 작업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압아파트 구내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굴착의 경우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 등으로 철탑주변 및 절개지 등의 지반유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溫故知新

백제 亡國의 교훈

8월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의 달이기도 하고 1910년 8·29 국치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1351년 전에는 백제가 망한 역사의 달이기도 하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웅진성(공주)으로 달아났던 의자왕(義慈王)과 태자 효(孝)가 투항해 백제가 망한 날은 서기 660년 음력 7월 18일, 올해는 양력으로 8월 17일이다. 이보다 앞서 7월13일 백제의 왕성 사비성(부여)이 함락되자 신라와 당의 18만 대군이 백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아비규환의 피바다 속에서 도성은 7일 낮 7일 밤을 철저히 불타고 무지막지하게 파괴당해 지상에 버티고 서서 남은 것이라고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자신의 군공을 새기려고 남겨둔 5층 석탑 하나뿐이었다.

그해 음력 8월 17일 소정방은 의자와 왕자 4명, 대신 93명, 남녀 백성 1만 2,807명을 포로로 이끌고 서해를 건너갔다.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썼다. "백제는 말기에 이르러 소행이 도리에 어긋남이 많고 또한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고 고구려와 친해 신라를 침략할때 당 고종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그 원한을 풀도록 했으나 겉으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어겨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은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다."

백제는 과연 김부식의 말대로 대국(당)에 죄를 지었기에 망해서 마땅했을까. 백제 망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당시 백제의 국세는 5방 37군 200여 성, 76만 호였다고 한다. 76만 호라면 인구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국세로도 단 한 달

은커녕 열흘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망국의 치욕을 당한 것이다.

무왕(武王)의 태자였던 의자왕은 젊어서는 결단성이 있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렸다고 한다. 641년 3월, 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자왕은 그 이듬해에 윤충(允忠) 등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의 서쪽 변경 40여 성을 빼앗았고 그 뒤에도 의직(義直)·은상(殷常) 등을 보내 신라를 쳤으며, 재위 15년(655)에는 상좌평 성충(成忠)을 보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의 30여 성을 빼앗을 만큼 위세를 떨쳤는데, '삼국사기'는 바로 그 해부터 매사가 빚나가기 시작했다고 전

한다.

즉 그해에 태자궁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하고 궁궐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으며, 그 이듬해에는 주색에 빠져들며 흥건하는 성충을 옥에 가두니 그때부터 간하는 신하가 없어지고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김유신(金庾信)이 모략전으로 보

낸 간첩 조미압과 좌평 입자, 요녀 금화 등에 의한 내부 분열도 백제 멸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국왕의 리더십 부재에 국론의 분열, 안보불감증 등이 망국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8만 나당연합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때는 이미 늦어 달솔 계백(階伯)과 5천 결사대의 동부전선도, 좌평 의직의 서부전선도 모두 무너져버리고 123년의 영화를 자랑하던 사비성은 맥없이 함락되고 말았으니 이 또한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냉혹한 교훈이 아니다.

국가 안보란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도 안 되는 법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미미한 점이 있으면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안보는 어떤가. 김대중 정권 이래 부국강병은 고사하고 북한에 핵협박 공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 김정일정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여기에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으니 그나마 사안마다 좌고우면하는 리더십이 걱정된다.

중국도 북한도 핵 무장을 했으니 차라리 우리도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동북아 전력(戰力)의 균형을 위해 일본에도 재무장을 권하는 것이 어떨까. [4]

지난달에 가볼 만한 계곡과 야영지 등을 소개 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열 번 백번을 강조해도 듣기 싫지 않은 안전에 대해 알아본다.

계곡의 안전수칙

계곡에 갔을때 가장 큰 복병은 기상 변화다. 특히 계곡에 텐트를 쳐놓았다가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급격히 불어난 계곡물이 넘치면서 텐트는 물론 사람까지도 휩쓸고 내려가 인명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영객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어디에 텐트를 쳐야 하는가이다. 초보자일수록 계곡 옆이나 물가 바위 위에 텐트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날 경우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텐트는 계곡보다 높은 위치를 골라 쳐야 한다. 특히 계곡이 많고 산세가 험한 곳에서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이 삼시간에 모여들어 엄청난 기세로 하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같은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그래서 계곡에 텐트를 칠 때는 허가된 야영장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계곡에서 떨어진 지역의 평탄한 양지를 골라야 한다. 물가나 넓은 바위 위는 위험하다. 뱀과 독충의 침입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젠 다 알면서도 설마 어찌라 하면서 방심했다가는 큰일을 당하기 쉽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산행 경험이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고 무리한 일정과 코스는 피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옷, 플래시, 로프 등 최소한의 장비와 초콜릿, 미숫가루 등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피서지에서 조심할 일들



시원한 계곡이지만 갑작스런 폭우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휴대용 소형 라디오도 가져가 일기에 보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영 도중 비가 오면 부지런히 야영장 주변을 관찰하고 일단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안전지대로 철수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크게 불어난 계곡에선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산비탈이나 능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좋다. 사정이 급박해 계곡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야영지는 조용한 곳보다 사람이 많은 지정장소를 선택해야 불의의 사태를 만나도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산행시 주의사항

이 삼복 더위에 산에 오를 경우는 일정이나 코스를 무리하게 잡아서선 안된다.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60이

넘은 회원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있어 1박2일 코스를 당일치기로 강행한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기 쉽다. 일사병은 강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땀으로 체온을 방출하지 못해 일어나며 열사병은 바람 한점 없는 고온다습한 지역을 걸을 때 자주 발생한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충남 아산시에 사는 84세 여성이 밭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다 숨을 거뒀고, 논에서 일 하다 쓰러진 천안시에 사는 89세 여성도 탈진으로 사망했다. 지난해는 더위병으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복지부는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엔 특히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낮시간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열과 탈진을 동반한 열사병 환자는 방치하면 증상이 나빠지는 만큼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행중 일행중에 초보자가 있는데도 숙련된 사람에게 맞추어 일정을 짜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의 기온은 평지보다 낮아 바람까지 불면 평지와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예사다. 사람은 평균체온 36.5도에서 1~2도만 떨어져도 몸이 떨리기 시작하므로 여름철 등반시에도 스웨터 같은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지참하자.

물놀이 주의사항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의 깊이와 물 밑 바닥 상태 등이 수영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하고 물에 들어가야 한다. 수영은 식사후 1시간~1시간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익사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피로. 따라서 1시간 정도 수영한 뒤에는 잠시 쉬는 것이 좋다. 띄워팔이라서 햇볕을 머리에 직접 받다보면 탈진할 수도 있으니 특히 대머리인 사람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텐 오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자.

수영을 하다 경련이 일어났을 경우는 물 속에서 얼굴을 아래로 숙인 자세를 취하고 경련이 일어난 곳을 손으로 꼭 쥐고 세차게 문지른다. 수영을 하다 물의 흐름에 휩쓸릴 경우는 그 흐름에 역지로 대항하지 말고 물 흐름의 대각선방향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가면 된다. [4]

이보길 편집위원 기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1545년 출생 입진란에 1598년 전사하였으니 금년 4월 28일은 탄신 4백66회 되는 날이다. 세계 3대 명장중에서도 조국에 충성심과 그의 뛰어난 인품과 전술은 세계 해군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수군통제사에서 전사 할때 까지의 진중일기 7권은 국보76호로 지정되어 있다. 탄신일을 맞아 국가 행사이던 기념행사를 정부에서 주관하던 것이 슬그머니 지방청 행사가 되어버렸다.

평소 충무공을 존경해왔다. 2005년에 난중일기를 양력으로 새로운 문장으로 품격있게 출판 하고 곱팡이 슨 난중일기를 컴퓨터로 스킨받아 한지에다가 영인본도 진품처럼 제작한바 있다.

그후 일본어판이 일본 동양문고에서 소책자로 3권 1질이 키타지마 만지(北島 萬智)번역으로 출판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영문판이 필요함에 출판된 책의 유무를 알아보니 1977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난중일기(NanJug Ilgi)가 출판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며 1권을 구입하여 보았다. 연세대 하태웅교수 번역에 손보기 교수의 편집으로 아담한 책자로 꾸며졌다. 여기에 여진(女眞)은 사람이 아니며 나의 진(余陣)을 글자 그대로 여자로 본데서 오역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커다란 오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을 보자.

1)丙申 九月 十二日 乙巳 風雨 (1596.11. 1. 이용호난중일기 양력표기) 婉出, 登途 十里許川邊,李光輔, 興 韓汝環, 佩酒來待 故下馬同話 而風雨不止 安世熙

暮到 茂長宿(女眞) 문제는 여진에 있다. 원문 책에는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암호 같은 표식이였다. 충무공은 이두(吏讀)를 난중일기에서 많이 보인다. 석세(石世)를 돌세 로 읽는다. 일기에 혹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될 내용은 이두로 써고 버리는 것이다. 정조때 관각했을때는 아주 지워 버렸다. 여진(女眞)을 사람 이름으로 착각한 것이다.

수재(手才)와 둔재(鈍才)를 논함에 있어서 실증적 연구가들 중에는 대뇌를 ‘단순한 운동이나 감각기관을 관리하는 영역’과 ‘사람에서만 볼 수 있는 말·행동·인식의 기능을 관리하는 영역’과 ‘사고·감정·의지·기억같은 것을 관리하는 영역’ 등 3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 3가지 부분의 기능이 빠짐없이 활동하는 사람은 기억력, 추리력, 창조력 등이 탁월하게 나타나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뇌의 크기와 무게 등은 서로 별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신경세포의 수에 있어서도 큰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병적이거나 대뇌에 기능장애가 있 다든지 구체화하는 능력·발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좋다’ ‘나쁘다’는 엄격히 구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대뇌에 이상이 없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때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성적이 좋았다고 본다.

요즘 떠들썩한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비

충무공의 亂中日記 英文版에 일부 誤譯



이 용 호

- 본회 회우
- 文學博士
-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해설: 늦게 길을 떠나 심리쫓되는 천변에 오니 이광보와 한여경이 술을 갖고 와서 기다린다. 한세희도 왔다. 저물어서야 무장에 도착하여 잤다. 그러면 되었는데 ‘친’을 데리고 곤한 잠에 들었다. 여진(女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최종에 가서 [P249--12. ul-sa A rainstorm raged Departediate. when I came to a stream ten li (about three miles) away. yi kwang bo and Han yo-kykong. were waiting for me. holding some bottles of wine in the strm An æ hui also came to join us the drinking party. After dark I arrived in Mujang to rest overnight--< spent the night with chin.

P 250

P 250 十四日 丁未 晴 Cree 留又

무장에서 머물렀다.

.stayed one more day in Mujang ..< the second night with chin >. 본문과 상관없는 사족(蛇足)을 붙여 놓았으니 충무공이 피곤 한데도 이틀째 같이 잤다로 해석된다.

3)십오일무신(十五日戊申) 15, Musin Clear

체상행차(體相行次) 도현(到縣) 인배(人拜) 의책(議策) 여진(女眞) 삼십(三十)

체찰사가 무장현(縣)에 도착했다 하

므로 들어가 절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Mu-sin clear.

When the party of the supreme Commisioner entered the town. Igreeted him and him and discussed staartegy <.spent the third night with chin .>

몸이 피로하지만 세 번째 밤 잠자리도 같이 하였다.

이두(吏讀)를 모른 탓도 있고 상식적으로

읽어보아 그럴듯도 하다. 그러나 女眞이 이두임을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을 갖고 글자대로 계집이란 말이 나오니 이런 오해도 있을 만하다. 소설이 아닌 일기 번역에서 볼때 큰 실수다. 다시 교정해야한다.

김훈의 ‘칼의 노래’에서도 우연히 병신년 가을 여진을 덮쳤다 라는 말이 나온다. 병신년 9월에 여진이 삼일간 등장 하였던바 거기에서 너무 사건 기복이 없으니 한번 남자의 본성을 보여주자고 한것같다. 왜냐 하면 A 해군 참모총장과 작가가 만났을 때도 김훈은 이두라는것을 생각 한것 같지 않다. 표현 또한 진하다.

전쟁소설일수록 여자관계가 주로 독자들의 심금도 울리고 짜릿하고 아련한 추억담도 갖게 한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또 난중일기가 아니라면 하등의 시비 거리가 될 수없다. 해군 참모총장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작가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니 성의 또한 대단하다.

병신년의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왜군

은 육지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를 먹었다.

이순신장군 주위에는 옥지 금희 같은 수발하는 소녀들과 종이 따르게 마련이다. 돌세라는 당번병은 한자로 석세(石世)다 이두로 사람 이름도 있다. 보통 넘는 고집과 생활 원칙이 있었던 분이다. 초판 (2001)도 한번 읽었다. 지금 갖고있는 책은 35쇄의 책인데 44개 항목으로 읽기 쉽게 나누어져 있다.

네번재항 ‘칼과 달과 몸’에서 여진의 병신년 가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나는 병신년 가을에 처음으로 여진을 폼었다.

-- 밤늦게 함평 현감이 내방으로 술상을 들여보냈다. 여진은 술상을 들여온 관기다. 그때 서른살 이라고 했다-- --그날밤 나는 여진을 폼었다 --그여자의 몸속은 따스하고 조봇했다--여진은 쉽게 수줍음을 버렸다. 여자의 몸은 출렁거리며 나에게 넘쳐 왔다. ----그날밤 나는 두 번째로 여진을 폼었다. 그여자의 몸은 너그러웠다. · ---대강 그런 표현들이다. 연세대 영문판에 ‘친’은 3회에 걸쳐 이순신이 같이 자는 것으로 나온다. 난중일기에는 9월 12일 13일 14일 세 번 나타난다. 횡수가 우연이 아니라 성인이거나 위인을 평범한 사회시민 다루듯 하기가 어렵단다. 80년대 교황이 한국에 올무렵 나는 대학문화사에서 이병주 작가에게 김대건 신부의 소설을 계약했다. 불과 한달여를 남겨 놓고 배상은 얼마든지 할것이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다. 위대한 성인을 어떻게 평민처럼 취급 할수도 없고 하니 끝내자는 것이였다.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오고간 서신으로 읽어 마무리하여 일단 책은 나왔다. 재미는 못보았으나 80년 국제 한국 펜 문학상을 받았다. 길가다가 돌에 채이듯 김훈까지 넣어서 난중일기 오식을 예로 들었다. 4·28 행사에 즈음하여 국보 76호 난중일기를 정성들여 읽고 공부하는 태도를 모든 국민들이 가졌으면 한다. 마땅히 연세대 출판부에서는 재판시 수정 해야할 것이다.㉔

生活斷想

秀才일까 鈍才일까



이 선 회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리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들의 머리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가 궁금하다.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 공무원들 수재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재주가 없는 둔재들도 많이 뽑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조폐공사 사람들이나 은행원들은 자기 앞에 보이는 돈을 자기가 갖고 싶어하면 근무를 못하는 것이다. 이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수재들은 공부할때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공직에 나가서도 판단을 잘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못한 둔재들은 판단력이 둔하여 시험도 잘치르지 못할 뿐 아니라 공직에 가서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공직자 채용에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만해도 고객의 돈을 제돈 쓰듯한 부정보다 그것을 지켜야할 금융감독원의 비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곳에도 둔재들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부산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에도 둔재들이 많다고 봐야 한다. 또 세무공무원 쪽에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뿐 아니라 최근 통계에 뇌물징계 공무원수가 4년새 5.5배나 늘었다는 보도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원래 관검사 쪽에서 나왔는데 그런 일을 모른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겼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온 듯하다. 전관예우란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뒤늦게 전관예우방지법이 나오긴 했으나 일찍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관검사들도 그동안 학교시험때나 사법

고시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답을 썼을 것이다. 정답을 쓰는 것이 습관화 됐다면 일부 관검사들은 왜 전관예우를 생각했을까 의심스럽다. 그것은 오직 학교시험때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정답 아닌 오답을 쓰기 일췌었다가 고시때 요행히 정답을 써서 합격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듯하다. 그래서 원바탕은 둔재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요즘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전관예우가 번지고 있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이회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에 대한 청호나이스와 SK그룹의 파격전관예우를 계기로 퇴직후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뇌물을 받는 사례가 권력기관 공무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5만원권 현금 등 추적이 어려운 신종뇌물수법도 동원된다는 보도다. 일부이긴 하지만 부정공직자 즉 둔재들이 공직자로 뽑혔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큰 악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관검사나 공무원 등 공직자들을 뽑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㉔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성공 개척을 위해 포스코가 함께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파트너로 포스코를 먼저 떠올릴까요?

고객의 성공을 향해 먼저 움직이는 일,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GE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
포스코의 신기술과 신제품은 모두 고객의 성공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경량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극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 갑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더 큰 세상에
더 많은 포스코가
필요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포스코센터 음악회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 기관장 평가서 최상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는 B(양호) 등급을, 기관평가는 C(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준정부기관장의 기관장 평가에서는 S등급과 A등급이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 하면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이다.

평가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이사장이 기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통합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재단의 비전 설정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비효율적인 신문유통사업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방향의 대전환을 이룬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또한 지난 6월 24일(금)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장애우 행사에 참가해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재단 임직원 6명이 참가한 이번 활동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등에서 진행됐다. 또한 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과 장애인 부모회의 노익상 회장은 장애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

언론가 소식

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특히 미디어산업 진흥기구로서의 역사적 기록을 정리한 '재단 50년사'를 발행한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재단의 사업본부장인 김연호 이사가, 자문 및 기획, 감수는 정진석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KBS 한국최초 장애인 앵커 선발

KBS는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장애인 뉴스 앵커를 선발했다. 이번 장애인 앵커 선발에는 32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이원창 전의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3일 이원창(李元昌·69) 전 한나라당 의원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향신문 사회부장, 편집국 부국장,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

원,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4년 7월 13일까지 3년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정병진)은 지난 7월14일 오전 10시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방송기자클럽(회장 오건환·분회 회우)도 7월 1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대 회의장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 TV토론회를 가졌다.

MBC, 한국 국제협력단과 방송협력 체결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8일 드림센터 임원실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나눔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방송 협약 MOU를 체결했다. MBC 본사는 KOICA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봉사단 파견 및 프로그램제작과 국제방송 원조, MBC나눔 봉사활동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상파 3사 동·하계올림픽 공동 중계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2024년 하계 올림픽까지 공동 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런던올림픽을 비롯해 2018년 동계올림픽은 물론 2024년 하계올림픽을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하게 된다.

한국신문협회 창립 54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6월 29일 청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협회창립5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현수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신문광고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 박 교수는 회원사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 각각의 광고 집행내용과 업종별 노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4만 5188개의 설문응답 데이터중 평균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의 광고 노출이 20대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고했다. [\[4\]](#)

중국과 일본이 요즘 왜 이러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중국은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자기 나라 소수민족의 노래라고 등재를 하는가 하면, 일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비행기가 날았다고 해서 일본 외무성 전 직원에게 한국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두 나라에서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G7, 세계7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다. 대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이웃나라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지도국으로서 모든 나라에 배려와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의 전래동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리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애환과 숨결이 숨 쉬고 있는 민족의 노래다. 그런 '아리랑'을 중국은 자기나라 노래라고 무형문화재로 최근에 등재를 했다. 이는 유네스코 등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인민일보 기자가 확인을 했다. 지난달 14일 중국의 인민일보 기자는 한민족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상임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그 기자는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느냐. 작은 나라에서 올려봐야 효과가 없다. 대국(大國)인 우리나라(중국)가, 뭘 해도 세계적"이라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리랑'을 문화재로 등록하자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 나라는 작은 나라(小國)인데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 같으냐.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中國)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관영일보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5년 전부터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근 일련의 중국 태도를 보면 심상치

무례한 中國 치졸한 日本



김휴선

- 분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가 않다.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면전에서 한 계급 낮은 천빙더(陳炳德)인민해방군총참모장이 15분가량 미국을 비난하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고 한다. 중국은 힘을 빌미로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중국이 요즘 왜 이럴까? 지난번 서해 초소에서 해병대의 감식 잘 못으로 아시아나 민항기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두고 우리정부에 경

고를 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중국은 "한국 측이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한국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와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물론 중국도 자기나라 민항기가 우리 상공과 영해를 비행하는 일이 있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얕보고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일로 '외교 경로'까지 거론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진짜 이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6·25를 생각하기조차 싫다. 그런데 금년이 마침 6·25 61주년이 되는 해다.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잠에 취해 있던 우리 국민을

향해 불법 남침을 감행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일요일 새벽을 틈타 우리에게 총질을 가한 것이다. 미국과 유엔군은 우리 군과 석 달 하루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어찌 보면 이때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가로막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최

근 만리장성 출발 기점(起點)을 압록강 하류 요녕성에 있는 '호산장성'이라고 선언을 했다. 이는 얼핏 보기에 만리장성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은 한국 고대사를 중국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음모에 분노하며 역사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는 중국은 세계질서를 기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이 또 동남쪽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A380 비행기를 도입했다. 대한항

공은 이번에 들여온 비행기로 일본 과 서울 노선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독도까지 시험비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전 공무원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을 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엇그제 일본이 쓰나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도와 줬는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 이상으로 도와줬다. 또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도 우리나라에 직·간접 많은 피해를 주었다. 생각하면 괴심하기까지 하다. 일본이 발표를 하던 날 필자가 서울의 어느 한 중학교에서 광고전제 이제석이 '뉴욕매디슨 스퀘어 광장'에 세운 '독도광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오던 참이라 더욱 씁쓸했다.

오늘날 중국은 6자회담이니 남북관계니 자기들이 아니면 남북관계가 성사되지 않은 양 우리에게 선심을 베풀고 있는 듯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도우는 척하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빼가고 있다. 엇그제 경제개발 특구로 기공식을 가진 황금평도 그렇고 나진 훈춘도 그렇다. 두만강을 따라 국경은 어느새 중국의 관광지로 변했고, 무신에서 캐낸 광물은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우려내는 현장이다. 중국은 어느 일간지의 사설처럼 마치 빈사 상태에 빠진 환자 목에 빨대를 박아 놓고 피를 빠는 드라큘라처럼 보인다. 조선족은 이 상황을 두고 "왜 한국은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걸 방치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러다간 북한은 동북 3성에 이어 중국의 제 4성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자기들의 잇속만 채울게 아니라 대국의 일원으로 세계질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런데 누가 그랬던가. 중국과 일본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4\]](#)

金泰運 원로회우 별세



고 김태운 회우



배병휴 회우가 조사를 읽고 있다.

김태운 원로 회우가 7월 1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7월 3일 오전 7시 발인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고 김태운 회우는 1927년 3월 1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 해주시범학교를 나와 홍익대 국문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언론계는 1954년 평화신문 사회부기자를 시작으로 경향신문에서 사회부기자, 차장, 부장을 지내고 서울신문 사회부장과 편집 부국장을 거쳐 매경에서 언론생활을 마감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극동스프링 크라 상무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 한라

리조트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 김태운 회우는 특히 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에 술 이야기를 장기 연재하는 등 노년에도 왕성한 필력을 과시했다.

저서로는 '사회부 기자' '한국골프 80년사' '골프실상 허상'을 남겼다. 대한언론인회는 7월 1일 오후 4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후원기회장, 조창화 명예회장, 김은구 상담역, 김성배 이태영 부회장, 정운중 사무총장 등 임원진과 유가족모두가 참석하 가운데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거행했다. [4]

弔辭 대한민국 사회부 記者

존경하는 金泰運 국장님.

오늘 저 멀리 떠나시는 길에 '대한민국 사회부 기자'로서 남기신 화려한 발자취를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국장님을 다시 한 번 회상합니다. 박력 넘치는 필치, 따뜻한 음성, 지극한 후배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多情多感하고 넓은 포용력으로 1970년대 每經 소공시대를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 주시고 감싸주신 대선배이자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국장님과 영결한다고 생각하니 그토록 넓은 도량과 따뜻한 숨결을 잊지 못해 이렇게 슬피 읊니다. 국장님께서 새벽 出勤, 通禁, 퇴근의 고달픈 記者생활에 용기를 잃지 말도록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당시 신생지 每經은 선배기자의 울타리가 미약하고 취재기반이 취약하여 일선기자들의 士氣가 축 처져 있었지만 국장님께서 냉혹한 取材장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행여 소외감에 빠져 좌절할까 걱정하여 落種에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特種에도 자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일선기자들이 부딪히고 막히는 대목마다 자상하게 풀어 주시고 독려해 주셨기에 그때를 영영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기자들의 멘토이자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국장님의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이 언제나 많은 기자들로 붐볐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퇴근길 소공동과 무공동 대포 집에서의 국장님 특강시간이 얼마나 인기였는지는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와 부장 시절에 겪은 격동기적 사회부는 죽기살기식 '전장의 전사'였노라고 말씀

배병휴(본회 회우 · 경제 풍월 발행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전후 기자'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학습과 단련으로 이룩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자생활에 필요하다면서 골프와 와인과 위스키 특강도 참으로 재미있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기자 골프'를 반대하는 저에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일러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노 골프'로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으니 실로 국장님의 말씀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장님의 유별하신 부부와 가족 사랑의 교훈을 잊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內助가 있었기에 외근기자로 마음껏 뒹 수 있었다"면서 사모님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먼저 떠나신 후 낙심과 고독감에 젖어 괴로워하시던 모습을 지금 이 시각에 다시 한번 안타깝게 회상합니다.

국장님께서 매경을 떠나 극동 스프링 크라의 임원과 사장, 한라리조트 컨트리클럽 사장으로 기업경영에서도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극동 스프링 크라는 김성진 회장과 각별한 친분으로 영입되어 사원에서 임원까지 늘 대화와 현장소통으로 노사간 상생공영의 기업문화를 심어 주셨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파라다이스그룹 창업자인 고 전낙원 회장의 카지도 사업에 대한 일부 사회적 오해를 안타깝게 여겨 전회장의 민간외교 공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사랑과 신뢰와 인정을 듬뿍 심어주신 국장님과 이별코자 하는 시각에 천생의 사회부 기자, 그리고 선배와 스승으로 남겨 주시고 물려주신 것 전부를 잊을 수 없어 모두가 슬퍼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운 국장님, 부디 저 세상에 가시더라도 사랑하는 사모님과 재회하여 편안한 영면의 세월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4]

金哲 회우 별세



고 김 철 회우



오건환 회우가 조사를 읽고 있다.

고 金哲회우의 언론인장이 지난달 15일 하오 5시 삼성의료원 영안실에서 대한언론인회 洪元基회장과 趙昌化 명예회장, 鄭雲宗 사무총장 및 고인의 유자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된 장례엔 鄭총장이 고인의 약력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 吳健煥회장이 추도사를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吳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제는 당신의 명쾌한 정국분석과 날카로운 인물평을 들을수도, 좌중을 휘어잡던 그 유쾌한 유머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슬회하며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끼던 동료·선후배 언론인들을 대신해서 큰술 한 잔 올리오니 더이상 건강 걱정마시고 한숨에 들어켜 달라"고 말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吳회장은 1970년 대한일보 견습 9기로 입사한 동기로 고인이 생전에 뜻을 함께한 몇 안되는 '百年知己' 중의 한 사람이다.

이날 장례에 참석한 언론인회 멤버들은 국내외적으로 점차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진정한 보수진영의 뚜렷한 논리와 진로를 제시한 '큰 논객'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의 갑작스런 타계를 아쉬워 했다. 특히 조객들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엄청난 술을 마시면서도 놀랄만큼 많은 독서를 한 사실을 회고하기도 했다.

언론인장에는 申東澈, 李炯均, 文明浩 등 16대 부회장들과 趙載麟, 金永凡, 閔正基 회원 등이 참가했다. CBS 사장을 역임한 李廷堉회원은 개인사정으로 장례식 직전 빈소를 떠났고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을 지낸 金鎭可, 辛卿植두분 회원은 교통체증에 막혀 언론인장이 끝난뒤 빈소에 도착, 헌화했다.

한편 1945년 9월 서울에서 해방동이

로 태어난 고인은 景福고교와 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ROTC 5기로 입관,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연락장교로 미8군에 파견근무하기도 했다.

대한일보에 입사, 주로 정치부기자로 뛰었고 1973년 신문이 폐간된 후 동아일보로 옮겨 정치부차장, 다시 조선일보로 스카우트되어 국제부장 등으로 활약했다. 김영삼대통령 시절 대통령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전국구의원으로서 국회에 진출, 집권당의 대변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정계 은퇴 후엔 뉴서울CC대표이사과 양평 TPC대표등을 역임했다.

그는 조선일보 국제부차장 시절인 1988년 10월 '擴大指向의 한국-민족 국가의 재구성론'이라는 298쪽짜리 저서를 펴내 그 자신 특유의 비전을 제시해 그 당시 언론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골프 칼럼집'을 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가족은 소망교회 집사로 봉사하는 강금옥여사와 미혼인 석원 수경 등 1남 1녀가 있다. ROTC 42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아들은 현재 연세대학원정외과에 적을 두고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며 딸은 중견화장품 메이커의 홍보팀에 근무 중이다.

4일장을 지내는 동안 고인의 빈소엔 전·현직 국회의원과 부의장 등을 비롯, 각계인사 500여명이 다녀갔으며 화장된 유해는 곤지암 근처에 위치한 소망동산에서 수목장으로 뿌려졌다. 이로써 해방되던해 자유의 몸으로 태어나 66년의 격동기를 살다간 '인간 김철'의 이름 두 글자는 '역사속 인물군(人物群)'에 편입됐다. [4]

弔辭 사회 첫 발 함께한 '동료'

오건환(본회 회우 · 방송기자클럽회장)

김 형!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김 형 주위의 그 많은 친구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와 술잔을 주고받고 누구와 웃음을 나누라고 홀연 떠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셨소? 김 형이 아프다는 소식만 이런저런 인편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이 불과 서너 달 전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한 비보를 받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려.

김 형이 몸져누웠다는 소식에 "응, 술병이겠지"하면서 가볍게 흘려들고 김 형이 강철 같이 단단한 몸을 지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술만 멀리하면 곧

났겠지" 하고는 무심히 지냈는데 간간이 들려오는 말로는 점점 병이 깊어가는 것 같다는 전언이 있었는데 끝내 이런 날벼락이 날아왔군요.

김 형! 이제 더 이상 김 형의 그 명쾌한 정국 분석과 날카로운 인물평을 들을 수도, 좌중을 휘어잡던 그 유쾌한 유머도 들을 수가 없겠군요.

김 형이 건넸던 술잔도 이제는 옛 기억으로만 남겠군요. 대한일보 폐간으로 4년 만에 헤어졌던 우리는 서로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에 있으면서 간혹 취재 현

21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모니카를 불자. 하모니카를 불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하모니카는 간편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거의 모든 장르를 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도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하모니카는 특히 고령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아주 특별한 건강증진 악기이다.

1820년대 중반 독일에서 첫 선을 보인 하모니카는 복근을 이용하여 7계음을 세 번은 날숨, 네 번은 들숨을 반복하며 연주한다. 하모니카는 호흡 중심을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 깊은 숨을 쉬게 한다. 그래서 폐 활용 범위의 확장과 탄력성은 물론 횡경막에서 기관지, 기도, 갈비뼈 사이 근육(肋間筋)을 튼튼케 하고 폐활량을 늘려 산소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면역력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하모니카를 4~5분만 불어도 불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혈중산소포화상태가 큰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하모니카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천식 환자에서 코고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근처 한 호텔에서 저격범의 총을 맞고 응급 수술

고령자 건강지킴이 하모니카를 불자



이광영

- 보회 회우
- 과학평론가
-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을 받은 후 호흡이 약해졌을 때 담당의사의 권유로 하모니카를 불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하모니카는 침샘의 기능도 높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 이와 잇몸에 이상이 없어도 입에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특히 아침에 구취가 심하다. 침 분비가 여의치 않은데 원인이 있다. 하

모니카를 불면 입 언저리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다 떨림의 소리(振動) 영향으로 입 언저리의 근육과 침샘기능이 활성화된다.

하모니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하모니카를 불면 도파민, 엔도르핀,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가 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살을 방지해 준다. 음악치료효과다.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담배로부터 해방되는 금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모니카는 우리의 건강과 희망, 행복과 세계 평화가 함께하는 악기(Harmonica for Health, Hope, Happiness and World Peace in Harmony : H4H)’라는 것이 하모니카 마니아들의 주장이다. 하모니카는 건강의 도구이자 소통의 도구이고 봉사의 도구이자 평화의 도구요 희망의 도구라는 이야기다. [4]

20면에서 이어집니다.

장에서만 만나다가 일선을 떠난 뒤 70을 앞두고 대한언론인회 회보 편집을 위해 회동하면서 지난 2년 간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지요. 편집회의에서 나는 늘 김 형의 해안에 놀랐고 날카로운 정국 분석과 뚜렷한 지향점 제시에 언제나 탄복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유려한 글로써 펼치는 김 형의 칼럼은 언제나 회보를 빛내주었고 김 형에게 원고를 부탁하면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김 형과의 인연은 40여 년 전 김 형을 비롯한 13명이 지금은 없어진 대한일보 문을 두드리면서 부터였지요.

수습기자 시절부터 김 형은 우리 입사 동기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는 중심인물이었지요. 특유의 유머 감각과 정보력, 뛰어난 상황 분석을 통해 회사 내부 소식을 알려주었는가 하면 때로는 데스크의 인성까지도 분석해줘 사회 초년생인 우리로 하여금 회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자였지요.

그러기에 대한일보 폐간 후 그 시절 명실상부 최고의 신문이라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드나들며 쟁쟁한 해당 회사의 수습기자 출신들과 당당히 경쟁했고 필명을 드높인 끝에 정계에 입문해 명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지요.

김 형, 잠시 정치에 몸담기도 했지만 당신은 분명히 유능한 기자였고 명 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짐작입니다만 지난 40여 년 동안 김 형 하면 동격으로 떠오르던 술이 끝내 김 형을 쓰러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술에 김 형이 쓰러지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형을 아끼던 동료, 선후배 언론인들을 대신해 큰 술 한 잔 올리니 더 이상 건강 걱정 마시고 마음 놓고 단숨에 들어켜십시오. 이승에 남겨놓은 모든 인연도 훌훌 털고 편히 가십시오.

2011년 7월 15일, 사회 첫발을 함께 내디뎠던 오건환이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4]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마치 노안을 고칠 수 있는것 처럼 선전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기술로 멀리 볼 수있게 하고 한편은 가깝게 볼 수있게 하는 마치 다초점 렌즈를 깎것 같은 수술로 노안을 고치는 완벽한 수술은 아니라고 안과전문의인 김지택 박사가 조언했다.

김 박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눈 질환은 안구건조증과 백내장이며 평소애 많이 생기는 눈병은 손을 잘씻지 않고 눈을 만질때 생기는 결막염과 각막염 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성질이 3개층 즉 유선층과 물 그리고 기름층으로 돼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눈물이 잘안나와 눈이 뻑뻑해져 많은 노년층이 겪는 질환인데 다만 인공눈물로 일시적으로 완화 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 고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어서 평소애 불편을 덜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적당한 인공눈물액을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을 하려면 세수할 때 면봉에 베이비오일을 묻혀서 눈꺼풀을 닦아주거나 양손가락으로 속눈썹 부분을 한 두번 문질러주면 좋고 아울러 눈다래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성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생기는 눈병으로 40세 이상 성인의 약 40%, 60대에선 33~55%, 70대에선 80%이상인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제는 간단한 수술 (약 15분정도)로 완치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백내장이 녹내장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예전에는 위험한 수술이었으나 이젠 기술의 발달로 아주 쉬운 수술이 됐다면서 의사는 환자가 보는 게 불편하다면 그때 수술하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심청이와 심봉사의 옛이야기 중 맹인이었던 심봉사는 아마 백내

노년기 눈 건강 관리 강의 夫婦동반 참석 등 큰 人氣

건강포럼 8월 휴강 9월 개최



눈관리에 대해 강의 하는 임지택 박사.



두 쌍의 회우 부부가 참석, 강의를 경청했다.

장 환자였기 때문에 심청을 만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백내장 부위가 벗겨져 앞을 볼 수있게 됐을 것이라며 시신경이 죽은 상태에선 절대로 앞을 다시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 회우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박사는 눈병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결막염인데 결막염은 눈 흰자에 생기는 세균성 질환이라 적당한 약을 투여하면 곧 완치되나 각막염은 눈동자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잘났지 않아 애를 먹는 질환이라며 특히 손 씻는 습관으로 이런 눈병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어 당뇨병 환자에게 생기는 당뇨병망막증은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지 15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눈의 혈관이 터지는 병인데 혈관이 터지면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명할 수도 있으므로 3~6개월마다 안과에 가서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비문증 즉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세는 안구의 유리체가 혼탁하거나 안저가 총혈파위로 눈앞에 물체가 날아다니는 듯이 보이는 증상인데 고칠 수는 없고 신경을 안 쓰는게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요즘 TV연속극에 엄마가 갑자기 보였다 안 보였다한다며 이 증상을 녹내장이 라고 단정을 내렸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는 신경질환에서 오는 것이라며 녹내장은 시력(앞을 보는 능력)은 살아있으나 시야(양 옆을 다 볼 수있는 능력)가 안 보이는 것이며 아주 드문 병으로 약간 잘 쓰면 실명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노후 시력 보호를 위해 금연, 운동, 적정 몸무게 유지, 식용유 자제와 중성지방

섭취도 제한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채소, 과일먹기, 비타민과 미네랄 복용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 할 것을 권하면서 굳이 복잡한 대학 병원 보다는 동네의원에서도 이런 진단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눈건강 관리 강연에는 전례없었던 두 쌍의 부부 동반 회우가 참석하는 등 모두 20여명의 회우들이 참석했고 강의가 끝난 후엔 건강포럼 개설이후 3년 반을 개근한 김두근 회우가 뒤풀이 스폰서를 했다. 한편 토요건강포럼은 8월에는 방학에 들어가며 9월에 개학한다. [4]

토요건강포럼 담당 이보길 기

회우동경

(가나다순)

방송기자저널 인터뷰



고수웅(한국지역민영 방송 협회 상근 부회장 · 전 KBS파리특파원)회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발행하는 월간 방송기자 저널 148호(2011년 7월 15일 발행) 6면 '탐방 인터뷰'에 출연. KBS 퇴직 후 지금까지의 근황을 소개.

민주평통 서울 광진구 사무국장에



곽찬호(전 경제통신 이사부국장)회우=7월 1일자로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취임.

사친(思親)문학세미나 참석 축하



권현석(전 한국일보 상임고문)회우=7월 15일 수필의 날 전국에서 3백여명의 문인이 참석한 사친(思親)문학세미나에 참석 축하를 했다. 효친사상이 깃든 작품을 공모하여 심사중인 제2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은 문화의 달인 10월 1일 강릉 사모정 공원에서 갖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김영택(전 동아일보 기획위원) 회우 = 지난 5월 2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김영택 회우의 '13일간 취재수첩'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

'언론계40여년' 자서전 집필 중



김재영(전 서울신문 지방부장)원로회우=최근 전남 자택에서 '언론계 40여년' 회고록 겸 자서전을 집필 중.

국제 세미나 패널로 참석



문명호(본회 논설고문 ·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회우=오는 8월 17-20일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해양지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 동해, 일본해 지명표기를 둘러싼 종합토론을 한다.

나환우 돕기 40년상 받아



봉두완(전 TBC 해설위원) 회우=5월 28일 천주교 수원 교구 이용훈 주교로부터 '나환우 돕기 40년상'을 받았다. 봉두완회우는 그동안 '한센병 환우 돕기'를 시작으로 나환자 돕기에 앞장섰다.

나혜석기념사업회 제1회 학술상 수상



이구열(전 대한일보 문화부장) 회우=7월 22일 나혜석기념사업회 제1회 학술상 특별상을 수상. 그와 때를 같이 하여 1974년에 출판되었던 나혜석 일대기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동화출판공사)가 서해문집사에서 출판되었다.

방일영재단 저술지원금 받아



여영무(전동아일보 논설위원 · 사진上) ·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 사진中) · 황원갑(전서울경제 사회문화부장 · 사진下) 본회 논설위원=최근 방일영 문화재단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각각 600만원의 저술지원금을 받는다.

'한일문화교류의 흐름' 세미나



정구중(전 동아닷컴 대표 · 한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회우=지난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일 · 한문화교류회(위원장 가와구치 기요후미 리쓰메이칸대 총장)와 공동으로 '한 · 일문화교류의 새로운 흐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이승만 회보' 제68호 발행



제재형 본회 고문=7월 11일자 '이승만 회보' 제68호를 발행.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46주기(7월 19일) 특집기사와 전 국회의장 雲耕 이재형 선생 19주기 추모사를 게재.

롯데 호텔에서 팔순 축하모임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본회 논설위원=7월 23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피코크 룸'에서 팔순축하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지용우 회우 가족과 친인척 3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대 석좌교수로



최희조(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본회 편집위원=9월 2학기부터 세종대 석좌교수로 임명돼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의 가치' 과목을 강의한다.

바둑모임 8월 30일 만남시다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 3분기 바둑모임을 8월 30일(화) 오후 2시 종로 3가 국일관 뒤편 바둑세계기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手談을 통한 반상의 천변만화를 즐겨 보십시오.

고 정인영 회우 5주기 추모식

한라그룹 고 윤곡 정인영 명예회장(전 본회 회우 · 사진)의 5주기 추모식이 7월 20일 경기도 양평군 용담리 선영에서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전 · 현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라그룹은



이날 추모행사에 앞서 잠실본사에서 '윤곡 정인영 5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을 열었다. 정 명예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이 사진전은 9월 중순까지 한라그룹 주요 사업장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접수순)

- 정범태 회우 = '명인 명창' (2002년)
'경서도 명인명창' (2005년)
- 손세일 회우 = '이승만과 김구 연구' (2008년)
- 성재삼 회우 = '혼자 살려거든 태어나지 말아라' (2008년)
- 이광영 회우 =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 (2010)
'청소년이 묻고 과학자가 답하다' (2011)
- 김후란 회우 = '나에게 문학은 무엇인가' (2007)
'김후란 시집 따뜻한 가족' (2009)
'그리움의 말을 찾아서' (2009)
'밀물과 썰물의 상처들' (2010)
'문향을 따라가다' (2010)
'자연 한줄 생명 한아름' (2011)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김경중 회우 = 인천시 중구 송월동 1가 12-59 2층(송월로 3번길) (우 400-221)
- 김관태 회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952 벽산아파트 403-1304 (우 448-714)
- 이규섭 회우 = 010-5203-7797
- 이용권 회우 = 서울 양천구 목5동 5단지 513동 603호 02-2645-3398
- 정연춘 회우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벽산아파트 202-305

회우 경조사

- 윤기로 회우 = 7월 16일 모친상. 영동세브란스 장례식장 7월 18일 발인
- 장 옥 회우 = 7월 26일 부친상.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8호실, 7월 28일 발인

연회비납부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2005 정연춘
- 2009 김철 이종전
- 2010 김철 이상우(36) 윤주영
이상갑 이종전 조규진
- 2011 김무중 김선기 김성수 김정일
김 철 민병문 설임윤 심재복
윤주영 이상갑 이상우(36)
이종전 주종환 홍용수
- 2012 김선기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_ www.kjclup.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_ 02)2273-4253 드림프랜드



당신과 함께 태어나
당신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불경히 자라고 있는
가.능.성.

만나치
세익스피어도
해리포터도
메디슨도
미소룡도
널만스런도
그 무엇도 될수있는
그래서 무한히 열려있는
이 아이처럼

가능성을 만나면
SK텔레콤



당신의 인생이 비를 만났을 때, 삼성생명이 우산이 되어드립니다

인생의 어느 날, 거센 비가 올 때
우산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준비합니다.
맑은 날 우산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비 올 때 든든한 우산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은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삼성생명

사랑하니까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준비한다



상담문의
www.samsunglife.com
1588-3114

보험은 사랑입니다



삼성생명

